

I. 서론

1.1 연구목적 및 연구동기

과학발전에 따라 뉴미디어 (New Media) 가 나타나면서 방송매체의 형태와 구조도 변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방송매체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 문화나 경제측면의 역할도 꾸준히 잘 맡고 있다. 신문, 인터넷, 라디오 등 매체중에 TV 는 다른 매체들보다 더 중요하다. 물론 요즘 인터넷이 나타난 후에 TV 가 많은 충격¹을 받았지만 각 연령층에 차지하는 시청자의 비율은 아직도 앞서고 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광고시장에서도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은 같은 동아시아 사회로서 TV 방송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온 영향이나 그로 인한 충격도 비슷하다. 한국에서 방송 3 사인 KBS (한국방송공사, Korean Broadcasting System, 이하 KBS 라 지칭함), MBC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 이하 MBC 라 지칭함), SBS (서울방송, Seoul Broadcasting System, 이하 SBS 라 지칭함) 는 유선 TV 방송과 위성 TV 방송이 나타난 후에 독과점했던 지위를 점점 잃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대만보다 지상파 TV 방송이 여전히 방송시장에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의 「방송 3 사」인 TTV (台灣電視公司, Taiwan Television Enterprise, 이하 TTV 라 지칭함), CTV (中國電視公司, China Television Company, 이하 CTV 라 지칭함), 그리고 CTS (中華電視公司, Chinese Television System, 이하 CTS 라 지칭함) 가 수십년 동안 받았던 어마어마한 광고수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더 이상 옛날 독과점했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유선 TV 방송의 점유율보다 낮아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 발전도 다른 길을 향해 걷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물론 민주화와 시장자유화를

¹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시한 「2010 년 방송매체 이용형태 조사, 85, 86 쪽」에 따르면 매체 이용 빈도로는 매일/거의 매일 TV 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82.6%로 1 등을 차지했다. 다음은 인터넷 (45.2%), 신문 (18.5%), 라디오 (16.2%) 의 순이었다. 한편, 연령별 TV 이용 빈도, 연령별 라디오 이용 빈도, 연령별 인터넷 이용 빈도, 그리고 연령별 신문 이용 빈도 조사에서는 매일/거의 매일 이용하는 응답자는 TV 가 10 대, 20 대부분에서만 각자 63.5%, 77.1%로 인터넷의 67.2%, 79.9%에게 졌지만 30 대의 84.8%, 40 대의 89.3%, 50 대의 91.1%, 그리고 60 세 이상의 96.8%가 모두 다른 매체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구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였지만, 문화와 사회경제 그리고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TV 방송이 지어야 할 공적인 책임과 국민을 대신하고 사회를 감독할 역할은 한국이든 대만이든 동일하고 변화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성을 취지로 나타난 공영 TV 방송은 더욱 더 그러하다. 공영 TV 방송은 공영이라는 이름 때문에 시시각각 국민의 감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상업 TV 방송이 없는 공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만큼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만큼 큰 역할을 맡는 공영 TV 방송이 한국과 대만에서 각기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요인이 있었는지를 연구하여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이 개선할 만한 점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더 좋은 TV 방송을 제공하는데 되었으면 한다.

1.2 선행연구

언론이 많이 자유로워진 이 시대에는, 나이, 성별, 계층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중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공적 영역 (public sphere) ²에서, 자유시장 지상이라고 시장경제를 ³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대중매체들이 사회를 맹목적으로 끌어내거나 틀린 정보들이 전해져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공영 TV 방송이 앞서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른 상업 TV 방송이 못 해주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한다. 물론, 공영 TV 방송은 안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상업 TV 방송처럼 광고시장에서 팽팽히 경쟁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선천적인 유세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상업 TV 방송보다 책임이 훨씬 크다.

한국에서나 대만에서나 상업 TV 방송이 많아질수록 공영 TV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게다가 소비자주의 지상을 강조하는 시대에 따라 공영 TV 방송이 광고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가치 등도 점점 변해버렸다. 그리하여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동시에 공영 TV 방송이 어떻게 이 공적인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한 토론과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²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 (Habermas) 가 저서 『공공성의 구조 전환』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정의는 쉽게 말하자면 나라와 사회 사이의 공적인 공간으로서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나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 곳이란 뜻이다.

³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는 국가정부가 말고 자유시장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즉, 자유시장에서 가격은 소유와 보급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에서 근 10 년 동안의 학술지와 논문 등을 살펴본 공영 TV 방송에 관한 의제를 대략 세가지로 나누었다.

1. 공영 TV 방송의 역할
2. 공영 TV 방송의 위기
3. 정치와 문화가 공영 TV 방송에 끼친 영향

공영 TV 방송의 역할은 교육, 정보제공, 자국문화의 홍보와 경제의 발전 등에 있다. 윤호진의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시스템의 이원화 및 세분화 방안」이 특히 디지털 시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공영 TV 방송의 역할을 제시하였다⁴. 한편,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요즘 문화산업에 공영 TV 방송의 도움이 특히 중요시하게 되었다. 한류(韓流) 열풍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관광산업도 더불어 번창하게 되었다.

대만은 한국보다 발전이 많이 늦지만 2005 년에 「공영방송 및 문화창의, 디지털 TV 방송발전 이년계획」⁵를 세워서 공영 TV 방송의 큰 영향을 잘 발휘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공영 TV 방송이 출범되어온 동안에 발전은 다르지만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매체들과 경쟁하여 이윤창출을 피할 수 없는 처지는 한국에서나 대만에서나 같다. 한국방송개발원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이 제출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역할과 개선방안-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공영방송 비교분석을 중심으로」에서, 한국의 공영 TV 방송들이 정체성을 잃은 위기를 제시하였다. 시대에 따라 상업 TV 방송과 경쟁하기 위하여 공적인 책임을 잃고 광고에 의존하게 되었다. 방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지금 한국의 공영 TV 방송들은 공적인 책임과 이윤추구의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반면, 대만에서는 공영 TV 방송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어떻게 인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보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발전이 늦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新聞局⁶이 2006 년에 발표한 「공영방송집단발전전안보고⁷」가 바로

⁴ 상업화 되어가는 다채널 방송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사회적 위상은 한층 중요해졌으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익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프로그램, 흥미 위주의 소식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매체로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윤호진 (2004)

⁵ 「公共廣電與文化創意, 數位電視發展兩年計畫」。

⁶ 대만 행정부에 속하며, 한국의 행정부 소속 문화, 예술, 방송행정, 출판 문화홍보 및 관광 등을 관할하는 문화관광부에 상응하는 기관이다.

⁷ 「公共廣電集團發展專案報告」。

공영 TV 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경영목표로 여긴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예산부족과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한국만큼 우월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마지막 의제는 공영 TV 방송의 발전과정에 큰 영향력을 끼친 문화와 정치력이다.

대만 교수 임려운(林麗雲)이 2005년 발표한 「위권주의국가와 TV 방송: 대만과 한국⁸」에서, 정권이 한국과 대만의 TV 방송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과 대만의 TV 방송의 발전은 처음에는 비슷하다. 출범이 된 후 점점 정권에 통치되었다. 나중에 시대의 변함에 따라 정치력에서 벗어나 자유화하려는 공영 TV 방송이 나타났다. 국민소유의 공영 TV 방송이 탈정치의 기대로 출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치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자주 비난을 받게 되었다.

1.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5 부분으로 나눈다:

1. 공영 TV 방송의 출범 및 발전
2. 공영 TV 방송의 조직 형태
3. 공영 TV 방송의 재원 구성
4. 공영 TV 방송의 법령 규정
5. 공영 TV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연구방법은 주로 학술계, 행정기관, 방송국의 자료를 살펴본 뒤,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을 각각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학술계:

- 한국 :
1. 한국언론학회⁹ (한국언론학보)
 2. 한국언론정보학회¹⁰ (한국언론정보학보)
 3.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¹¹ (KBI 연구)

⁸ 「威權主義國家與電視：臺灣與南韓之比較」。

⁹ 전명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이다. 1959년 6월 31일에 설립하였다.

¹⁰ 전명은 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이다. 1988년 2월에 창립된 한국사회언론연구회가 1998년 4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이 출범한 학술단체이다.

- 대만 : 1. 中華傳播學會¹² (中華傳播學刊)
 2. 政治大學新聞學系¹³ (新聞學研究)
 3. 政治大學廣播電視學系¹⁴ (廣播與電視)

방송국:

- 한국 : 1. 공영 TV 방송 (KBS, MBC, EBS)
 2. 상업 TV 방송 (SBS)
- 대만 : 1. 공영 TV 방송 (PTS, CTS,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2. 상업 TV 방송 (TTV, CTV, FTV)

행정기관:

- 한국 : 1.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콘텐츠진흥원
- 대만 : 1. NCC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2. 문화건설위원회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본 연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6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 1 장은 서론이다. 제 2 장은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다. 제 3 장은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의 경영 형태 비교이다. 제 4 장은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 프로그램 비교이다. 제 5 장은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의 난점과 개혁 방향이다. 마지막 제 6 장은 결론이다.

¹¹ 1989 년 한국방송개발원의 이름으로 설립되다가 2001 년에 한국방송영상진흥원으로 변경하였다. 2009 년 다른 기관들과 합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¹² 1996 년에 대만에서 몇 명의 학자들이 주도 설립한 학회이다. 영어명칭은 Chinese Communication Society 이다. 매년에 두 번씩 간물을 발행하고 수 차례 학술회의를 주최한다.

¹³ 국립 정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¹⁴ 국립 정치대학교 방송학과.

II.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의 생성과 발전

2.1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의 생성과 발전

2.1.1 TV 방송의 생성

1926년 영국에서 최초로 TV 수신기가 출현했다. 그 후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발전하였고, 사람들은 음성방송인 라디오 시대에서 벗어나, 음성과 화면을 동시에 즐기는 시대에 진입하여 TV 방송이 전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왔다.

< 표 II-1 > 한국, 대만 TV 방송의 발전

	한국	대만
TV 방송 출범	1961년 KBS 개국	1962년 TTV 개국
컬러 방송	1980년 KBS	1969년 CTV
유선방송 도입	1995년	1993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1999년

한국과 대만의 TV 방송이 똑같이 60년대에 출범이 되었다. 유선 TV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발전되었다. 대만의 TV 방송은 그보다 일년 늦게 도입했지만, 일찍이 유선 TV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은 도입하였다.

TV 방송이 처음 출범이 되었을 때에는, 정치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국에서나 대만에서 지상파 TV 방송들이 거의 각자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방송이 공공재인 전파를 소유해서 국민을 위하여 방송해줘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었다.

앞에 제시한듯이 한국과 대만에서 TV 방송의 출범뿐만 아니라 유선 TV 방송과 케이블 TV 방송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범이 되어서 TV 방송 환경은 새로운 발전을 시작하였다. 다만, 공영 TV 방송에서는 큰 시간차이가 나타났다.

2.1.2 정치력이 TV 방송에 끼치는 영향

TV 방송을 통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보도 금방 얻을 수 있어서 생활에 도움이 될 때가 많다. 그런데 사실 TV 방송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에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각 방송사의 정치성향 때문에 공정한 정보를 전해주는커녕 오히려 균형성을 (Balance)¹⁵ 잃어 국가정부와 이해관계자의 홍보도구가 되어서 시청자의 이데올로기를 바꾸기 위하여 애를 쓰기만 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TV 방송은 모두 일제강점기 후에야 나타났다. TV 방송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정치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한국에서 전두환정부가 추진한 언론 통폐합¹⁶은 TV 방송 발전 과정 중에 하나의 중요한 역사였다.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그리고 한국 FM 이 강제적으로 KBS 에게 흡수되었다¹⁷. 그 뿐만 아니라 KBS 가 MBC 70%의 주식을 입수하여 영향력이 큰 기관이 되었다¹⁸.

언론 통폐합을 통하여 당시 TV 방송에서는 겨우 KBS 와 MBC 두 개 방송국만 남아 있었다. 이래서 KBS 와 MBC 는 정부성향이 있고 방송시장을 독과점한다는 지적등을 많이 받았다. 심지어 80 년대 벌인 시청료 납입거부운동¹⁹으로 인해 KBS 는 한 동안 곤란을 겪었다²⁰.

¹⁵ 보도원칙 중의 하나이다. 그 외에 또 정확성 (Accuracy) , 객관성 (Objectivity) 등이 있다.

¹⁶ 1980 년 2 월에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을 회복한다는 지시 아래 추진된 언론 통폐합 조치이다. 이에 의해 신문사, 방송사, 그리고 통신사가 해체하거나 통합한 방식으로 기관 수를 줄였다. 언론의 육성과 발전의 이름으로 실시하였지만 실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¹⁷ 언론통폐합에 의하여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사 (종합지, 경제지, 영자지, 지방지 등) 와 통신사들도 강제적으로 합병을 당하였다.

¹⁸ MBC 절반의 주식이 공영인 KBS 에게 흡수된 이후 1988 년에 문화진흥위원회가 창립한 후에야 다시 주식을 돌려받고 문화진흥위원회에게 이전하여 공영방송으로 바뀌었다.

¹⁹ 1986 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KNCC) 주도한 운동이다. KNCC 가 KBS 가 공영방송으로서 프로그램의 제작과 전달과정에서 정확한 자세를 찾아볼 수 없고 시청료와 막대한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면서 시청자들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정부의 국민 지배도구로 이용당한다고 지적하였다.

²⁰ 지난 2 월 11 일 한국기독교협의회 가맹 6 개교단과 교회여성연합회 등 기독교단체들이 KBS 등 방송매체들의 편파보도를 비난하면서 「시청료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킨데 이어 1 일에는 시청료거부를 촉구하는 교육자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는 「KBS 를 보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 각 가정의 대문에 붙이는 등 시청료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이 운동이 공영방송의 公信力에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심대하다.

KBS 등 공영방송측은 자체에 뉴스보도와 논평은 3 大원리인 정확성 객관성 형평성을 살려 공정보도해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이 민간방송이 없는

당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執行委員長) 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면서 이 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주장한다²¹.

한국 70·80 년때 KBS, MBC 가 TV 방송을 독과점한 것처럼, 대만 「방송 3 사」인²² TTV, CTV, CTS 역시 마찬가지로 각자 정부, 국민당, 국방부. 교육부에 속하고 있어서 관료적인 방송국과 다름없이 방송시장을 독과점 했다.

< 표 II-2 > 대만 방송 3사 개국 당시의 자본소유

TTV	정부, 각 중앙산업은행 49%	민간 11% 일본외자 40%
CTV	중국라디오방송 (中國廣播公司) 50%	민영라디오방송 28% 기타 민간 22%
CTS	국방부 (國防部), 교육부 (教育部) 49%	민간 51%

참조 : 『解構廣電媒體』, 澄社
본 연구 표로 재구성.



한국과 대만의 TV 방송이 90 년대에 들어와서야 오랫동안 상업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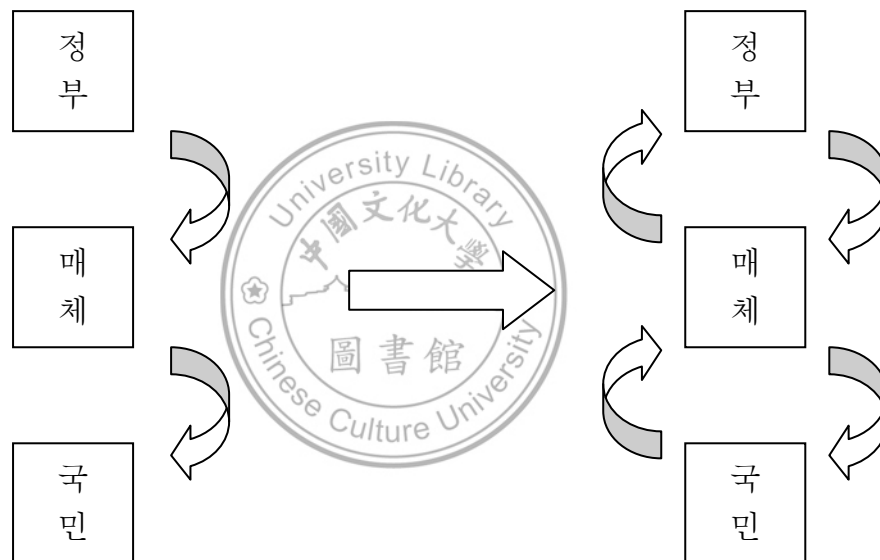
한국에서 대부분 전체시청자들이 공영방송에 바라는 조그만한 간절한 소망이다. 이번에는 시청자로서의 국민들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인 이런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 동아일보, 1986년 4월 3일

²¹ “요약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의 KBS 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채 왜곡 편향 보도를 일삼아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봉쇄, 국민을 이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품소비를 통해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는 국민에게 시청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담」입니다. 시청료내고 광고방송 보는 것이지요. 특히 농촌사람들은 두 달마다 5 천원이란 시청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호소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언론기본법에 규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저질 퇴폐화된 오락프로그램으로 채워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민의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KBS 시청료납부거부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1986년 4월 5일, 동아일보

²² 대만에서 첫번째 나타난 지상파 TTV (臺灣電視臺, 약칭 臺視이다) 를 비롯해서 그후에 설립된 CTV (中國電視臺, 약칭 中視이다) 와 CTS 中華電視臺, 약칭 華視이다) 가 세 방송국이 1997 년 FTV 가 나타나기 전에 30 여년 동안을 다른 경쟁자 없이 지상파를 차지했다. CTV 와 TTV 가 각자 2005 년, 2007 년에 민영으로 바꾸고 CTS 는 2006 년에 공영으로 바꿨다. 대만에서 보통 이 방송 3 사를 노삼대 (老三臺) 로 부른다.

방송 없이 경쟁력을 잃는 처지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다. 시대가 자유화되면서 매체는 정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 나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피동적으로 텔레비전으로부터 전해준 정보만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것도 쟁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텔레비전과 온 국민의 관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One-way Communication) 이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Two-way Communication) ²³으로 변해갔다. 즉, 텔레비전은 국민의 알권리 (Right to Know) ²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의 온 의견들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텔레비전과 국민 관계의 추이



TV 방송은 바로 이런 시점에 정식으로 정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91년 한국의 SBS와 대만의 FTV가 바로 매체민주화를 상징한 지표이다. 오랜만에 나타난 민영 TV 방송이어서 의미있는 출범이기도 하고 TV 방송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²³ 텔레비전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정부 대신 법령을 홍보하는 도구가 되었다. 국민이 방송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였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 텔레비전의 역할은 국민 대신 의견을 정부에게 알려준 중개자가 되었다. 사회에서 개선할 만한 부분을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하여 잘 고치도록 노력한다.

²⁴ 국민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스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에 있어서 전달자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는 권리, 국민 각자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 표 II-3 > 한국, 대만의 지상파 TV 방송의 개국 연표

연대	대만	한국
1961		KBS1
1962	TTV	
1969	CTV	MBC
1971	CTS	
1973		
1980		KBS2
1990		EBS
1991		SBS
1997	FTV	
1998	PTS	

홍보도구가 된 TV 방송이 오랫동안 독과점되면서 TV 방송 환경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과 대만은 드디어 민영 TV 방송을 개방하기로 결심하였다.

< 표 II-4 > 민영방송의 개방과정

민방시청	결과발표	방송국	대주주
1990.9.10	1990.10.10	SBS	(주) 태영 ²⁵
1994.1.28	1995.6.16	FTV	民間全民電視股份有限公司 ²⁶

“SBS 출범은 시대적 당위였다. 1980 년대는 언론계에도 혹독한 한파가 몰아친 질곡의 시대였다. 언론사가 강제로 통폐합되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채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제도권에 남아 있는 언론사들도 사정은 대동소이했다.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의 추상같은 통제 속에 보도 기능은 위축되고 진실은 은폐되었다.

제 5 공화국 철권통치가 끝나고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제 6 공화국에 접어들자

²⁵ 방송뿐만 아니라 건설, 레저, 물류, 그리고 무역도 경영하는 그룹기업이다.

²⁶ 1994 년 신문국이 네번째 지상파 채널을 개방할 공포를 냈다. 개방경쟁자가 많아서 民間傳播公司和 全民電通公司가 합의해서 합병하기로 했다.

누적된 국민 불만이 곳곳에서 분출했다. 1990년 6월, 공보처²⁷가 확정, 발표한 방송제도 개편안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정부가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된 시대적 요청을 수렴하여 민영방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민방 역할이 확대되어가고 있던 시대적 배경과 주변국의 위성방송 확대도 민방 허용 여론을 부추겼다²⁸.“

TBC가 처음 민영 TV 방송으로 출범이 되었지만 80년대에 공영 TV 방송인 KBS에게 흡수되면서 KBS-2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한국은 오랫동안 민영 TV 방송 없이 걸어왔다. 공영 TV 방송이 독과점을 하면서, 경쟁 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왔다.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정부가 민영 TV 방송을 개방하면서 경쟁력이 제고되었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만도 5년후에 같은 이유로 민영 TV 방송을 개방하였다. FTV가 “민간에서 나와서 온 국민에 속한다. (來自民間, 屬於全民)”의 기여로 출범이 되었다. 대만 TV 방송환경에 새로운 시작을 해줌으로써 경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내었다.

1. 전문적인 경영을 존중하여 소유권과 경영권을 따로 나눈다.
2. 재단들이 독과점을 못 하게 주식 대중화하도록 한다.
3. 매체민주화자주정신 (媒體民主化自主精神)을 강조하고 보도 균형성을 중요시한다.²⁹

²⁷ 1948년 국가의 이념과 정책 선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중앙행정부서이었다. 그 사이에 공보부, 문화공보부, 국정홍보처 (國政弘報處)로 개편해온다. 주로 국내외 홍보, 여론조사, 언론, 보도 등 관한 업무를 한다. 1956년에 폐지되었다.

²⁸ 「SBS 10년사」

²⁹ FTV 공식사이트 참고함. <http://www.ftv.com.tw/>

2.1.3 문화산업으로 등극

TV 방송은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국한되지 않고, 해외로 나아가고 있었다. 초기엔 정부 대신하는 홍보도구였는데 요즘은 문화산업에서 한 몫을 하게 되어 국가가 자국문화를 홍보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한국에서 문화산업은 벌써 오래전부터 신흥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³⁰에 따르면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³¹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 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TV 방송을 통하여 드라마를 전세계에 팔아서 한류를 일으키는 것은 문화산업에 한 몫을 한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상파 TV 방송은 여러나라들과 프로그램을 수출입하고 있다. 한국 프로그램을 수입한 금액으로 보면 일본이 제일 많고, 대만이 다음이다. 반면 한국의 대만 프로그램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

³⁰ 제 1 조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³¹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표 II-5 > 지상파방송의 주요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한원)

	수출액	수입액
일본	6,431	26
중국	628	17
홍콩	402	0
대만	1,157	0
싱가포르	252	0
태국	333	0
필리핀	176	0
미국	78	165
영국	1	84

출처 : 「201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50 쪽」, 방송통신위원회
본 연구 표로 재구성.

대만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래도 대만은 2010년에 문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文化創意產業發展法 (문화창의산업발전법)³²을 제정하였다. 제 3 조에 따르면 문화창의산업이란 창의나 문화로 쌓이어서 형성된 산업이라고 한다. 이런 산업은 재산을 불리거나 취직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미학소질을 늘릴 수 있고 국민생활환경도 향상시킬 수 있다.

1. 시각예술산업
2. 음악, 공연예술 (performing art) 산업
3. 문화자산응용 및 전시연출시설산업
4. 공예산업
5. 영화산업
6. 방송산업
7. 출판산업
8. 광고산업
9. 상품디자인산업
10. 시각전달디자인산업

³² 문화창의산업이란 용어가 2009년 행정원이 통과한

「創意台灣－文化創意產業發展方案」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대만이 아시아창의산업의 중심이 될 목표로 2009년~2013년 동안에 문화산업을 발전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문화창의산업이나 문화산업이란 용어가 둘 다 각 나라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문화산업이란 말한다.

11. 디자인브랜드패션산업
12. 건축브랜드패션산업
13. 디지털콘텐츠산업
14. 창의문화산업
15. 유행음악 및 문화콘텐츠산업
16. 중앙정부기관이 지정한 기타산업

문화산업은 이제 국가발전의 한 도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만에서 문화창의산업을 行政院 추진한 6 대신흥산업 (六大新興產業)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文建會³³에 따르면 전세계 華人문화에서 대만은 3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 대만은 해양문화, 이민사회의 다원적인 포용력, 개방자유의 마음,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용기, 넓은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2. 대만은 깊은 중화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학 (儒學) 정신을 보존하고 있다.
3. 대만은 華人세계 중에 처음으로 민주체도를 실시한 데이다. 자유창작한 환경과 자유롭고 넓은 마음은 문화산업의 생명력이고 근원이다.

비록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문화산업의 발전이 늦게 일어났지만 이 3 가지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TV 방송을 개선한 데에 절대적으로 크게 이바지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만 문건회는 SWOT 를 이용해서 대만 문화산업의 장점, 약점, 기회, 위협을 제시해서 문화산업에 대한 중시를 나타냈다.

< 표 II-6 > 대만문화산업의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1. 자유창작 환경, 많은 우수인재. 민간에서 오는 끊이지 않는 창작력. 2. 개방 다원적인 사회, 예문활동의 다원성. 3. 다양하고 투명한 정보, 사회자체에 쉽게 받아들여진 새로운 가치. 4. 과학의 발전으로 문화창의산업이	1. 산업화가 필요한 것과 필요없는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의 필요와 기대에 차이가 나타남. 2. 정부부문이 분산하고 결합한 planform 의 부족함. 3. 시장이 작고 규모가 작아서 내수시장에만 의해 산업이 형성할 수

³³ 文化建設委員會 (문화산업위원회) : 1981년 성립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비슷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예술건설, 문화건설 등이 있다.

<p>다원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음.</p> <p>5. 지방문화에 활력이 넘치면서 대중의 예문활동과 창의적인 생활에 대한 욕망이 갈수록 높아짐.</p>	<p>없고 국제시장에서 개발력이 약함.</p> <p>4. 문화정책이 정치와 경제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대중은 정책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음.</p> <p>5. 자금 부족으로 문화투자를 자극할 방침이 부족함.</p> <p>6. 지능재산권을 잘 못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음.</p> <p>7. 예술문화 영역에서 결합, 마케팅, 그리고 관리의 인재가 부족함.</p>
<p>Opportunity</p>	<p>Threat</p>
<p>1. 자유개방적인 대만문화가 華人세계의 브랜드가 돼서 華人문화창의산업의 경제를 자극할 수 있음.</p> <p>2. 민간인재가 많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큼.</p>	<p>1. 중국시장이 넓어서 세계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중국 또한 문화산업중심발전산업으로 여겨지므로 대만에 경쟁압력이 됨.</p> <p>2. 문화차이로 대만의 문화산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법령 때문에 협상이 필요함.</p> <p>3. 세계각국이 문화산업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가 있어서 경쟁이 팽팽함.</p>

출처 : 「創意臺灣-文化創意產業發展方案行動計畫 98-102年」, 경제부, 신문국, 문건회

발전이 늦은 만큼 문화산업 주관기관의 구조도 한국보다 완비되지 않았다. 한국은 2009년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설립하고 대만은 2010년에 문화창의발전법을 설립하였다. 지금 대만에서는 문화산업의 업무를 분류대로 각기 문건회, 신문국, 경제부 세 기관이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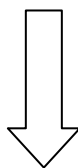
< 표 II-7 > 대만문화산업의 주관기관

		대만	
문화창의산업	기관	文建會	공예
		新聞局	방송
		經濟部	디지털, 디자인
	법령	2010. 문화창의발전법	

한국은 일찍이 89년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고, 이어 게임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였다. 200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된 후, 이 세기간을 합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 표 II-8 > 한국문화산업의 주관기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989.4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 설립 2001.11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0.6 게임종합지원센터 법인설립 2001.12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2007.4 한국게임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1.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문화산업	한국	
	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령	2009.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대만과 한국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화산업의 정의를 대개 10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음악
2. 공예
3. 영화
4. 방송
5. 공연
6. 출판
7. 광고
8. 디자인
9. 문화콘텐츠
10. 디지털콘텐츠



매체는 국가경제를 제고하고 자국문화를 보존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했든 매체는 자국방송이든 해외로 내보내는 방송이든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자국문화를 홍보하는데에 기여해야 한다.

대만과 한국의 방송발전은 비슷하다. 한국은 중국의 유교사상,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타문화의 영향도 받았지만, 문화산업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대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대만은 경제 제고를 위하여 애쓴 나머지 문화의 중요성을 잊었던 것 같다. 방송국 프로그램의 편성으로 보면 대만과 한국은 외래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은 전혀 다른 태도로 보인다.

< 표 II-9 > 한국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전체시간 비율

국내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지상파	EBS	70% 이상
	KBS, MBC, SBS	80% 이상

유선방송		50%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지상파	EBS	8% 이상
	KBS, MBC, SBS	45% 이상
유선방송		35% 이상
국내제작 영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지상파	EBS	25% 이상
	KBS, MBC, SBS	
유선방송		
국내제작 대중음악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지상파	EBS	60% 이상
	KBS, MBC, SBS	
유선방송		

출처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방송위원회

< 표 II-10 > 대만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전체시간 비율

지상파	70% 이상
유선방송	20% 이상

참조 : 「廣播電視法」, 「有線廣播電視法」

한국은 애니메이션, 영화, 대중음악 등 내용별로 구분해 각기의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다. 한편 EBS 는 교육방송이라 KBS, MBC, SBS 와 다르게 편성비율을 정하고 있다

대만의 비율이 한국과 비슷하지만, 내용으로 구분하지 않아 실은 애매한 제한이다. 그래서 유선방송,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 최근 지상파방송까지도 황금시청대에 외국드라마를 편성하기 시작했다. 자체제작 대신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어졌지만 방송국 자체의 특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 TV 방송의 환경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에 2011년 1월 11일에는 어떤 국회의원이 방송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자국방송산업에 대한 투자도 같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만은 다른 나라의 TV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제한으로 인해 앞으로

문화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³⁴를 일으킬 우려가 됐다.

한국의 방송 3 사는 매년 어마어마한 투자자금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다. 결국 한국문화의 홍보와 관광사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뉴미디어 (New media)³⁵ 들이 나타난 후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다.³⁶ 텔레비전에 대한 신뢰도도는 많이 떨어졌지만 반 세기가 지나도 텔레비전의 가치와 지위는 여전히 높다.

텔레비전의 역할은 교육, 문화, 정보, 오락 등이 있다. 시장지상주의에 따라 텔레비전도 오락적인 향으로 흘러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동시에 장점도 증가했다. 예를 들어 각 민족의 평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매체접근권 (Public Access) 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여 텔레비전이 대중으로부터 시청자로 여기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방송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대만은 개선할 곳이 여전히 많다. 그래도 다언어 다민족을 가지고 있는 대만으로서 80 년대에 나타난 첫 민영인 FTV (民間全民電視公司, Formosa Television, 이하 FTV 라 지칭함) 이나 90 년때 나타난 민족채널인 Hakka TV (客家電視臺) 와 Taiwan Indigenous TV (原住民族電視臺) 은 다원문화의 보존에 큰 역할과 기여를 했다. 계엄 해제 전 사용금지되었던 대만어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그리고 해외 화교를 목표로 하는 Taiwan Macroview TV (台灣宏觀電視臺) 도 중국어, 대만어, 광둥어, 하카어, 영어로 뉴스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어서 다민족인 대만의 다원문화를 보존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³⁴ 다른 나라가 문화를 도구로 자국문화에 침입한다. 대만과 한국은 똑같이 일본의 통치를 받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적지 않았다. 한국은 요즘 드라마 등 문화상품으로 전세계에서 한류를 일으키었다.

³⁵ 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그 응용을 가리키는 용어이자 신정보 매체라고도 한다. 즉 텔레텍스, 팩스, 비디오텍스 등 텔레마텍스라 부르는 비전화계의 새로운 서비스나 통신망 등 공중 통신의 범주에 속하는 것 외에 구내 정보 통신망(LAN), 종합 유선 방송(CATV)등 이용자에 의한 망이나 위성을 이용하는 이용자 직접 통신 또는 방송분야의 신기술과 그 이용 형태 등의 총칭이다. 앞으로 제도와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더욱 다양한 개념이나 발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용어사전>

³⁶ 수신자인 국민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이 되어서 참여하기도 쉬워졌다. 그래서 피드백 (feedback) 이란 산물도 나타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된다.

2.2 한국 공영 TV 의 생성과 발전

< 표 II-11 > 한국의 공영 TV 방송

1973 년	KBS 가 공영방송으로 바뀜
1981 년	상업방송인 MBC 가 대부분의 주식을 KBS 에 넘긴 후에 공영방송으로 바뀜
2000 년	EBS 가 공영방송으로 바뀜

한국에서 첫번째 출범된 공영 TV 방송은 KBS 이다. KBS 가 개국한 지 12 년이 된 1973 년에 공영 TV 방송으로 바뀐 것이다. 80 년대에 이르러 MBC 가 두번째 공영 TV 방송으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EBS 가 2000 년에 공영 TV 방송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공영 TV 방송이 모두 출범이 되자, TV 방송시장에서는 공적인 가치에 기울이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2.3 대만 공영 TV 의 생성과 발전

< 표 II-12 > 대만의 공영 TV 방송

1998 년	PTS 가 공영 TV 방송의 이름으로 개국
2006 년	상업 TV 방송인 CTS 가 공영 TV 방송으로 바뀜
2007 년	Hakka TV ,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가 공영 TV 방송으로 바뀜

반면, 대만은 뒤늦게 1998 년에 들어서야 공영 TV 방송 PTS (公共電視,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이하 PTS 라 지칭함) 가

출범이 되었다. 첫번째 출범된 공영 TV 방송인 PTS 는 KBS 와는 달리, 국영방송에서 공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영 TV 방송이란 이름으로 나타난 방송이다.

방송이 온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듯이 공영 TV 방송의 이름으로 나타난 방송인만큼 더욱 더 이 공적인 책임을 철저히 지어야 한다. 국영에서 공영으로 바뀐 KBS 나, 무려 18 년이나 걸려서 나타난 PTS 가 첫번째 나타난 공영 TV 방송으로서 온 국민과 사회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는 상상할 수가 없다.

공영 TV 방송이 나라자체의 문화나 경제에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역할처럼 공영 TV 방송의 구조도 무시할 수가 없다. 2006 년까지도 대만은 공영 TV 방송이 하나밖에 없었다. 정부가 매년 주는 자금도 첫해는 12 억원이었지만 이제는 겨우 9 억원이다. KBS 는 1973 년부터 가구당 한 달에 2500 원의 수신료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편이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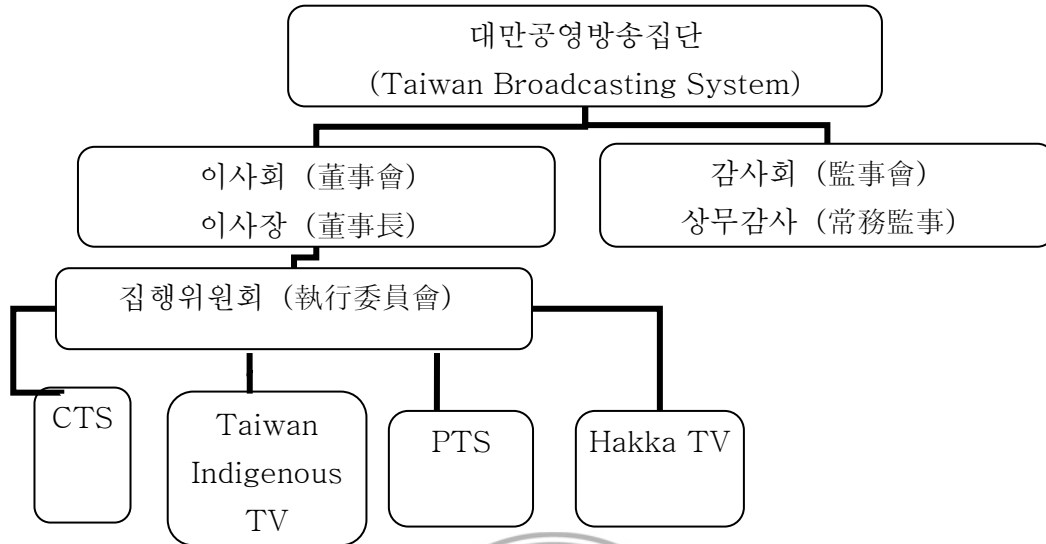
한국은 KBS 를 비롯하여 MBC, EBS 모두 다 공영 TV 방송이다. 하지만 , 대만에서는 2006 년에 들어와서야 지상파에서 제 2 의 공영 TV 방송이 나타났다. 2007 년에 또 다른 공영 TV 방송 생겼다. 바로 공영방송집단³⁸ (TBS) 의 출범이었다.



³⁷ KBS 가 국영방송시절인 1963 년부터 시청료를 월 100 원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1973 년 공영으로 바뀌면서 월 2500 원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시청료의 이름이 1989 년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

³⁸ 臺灣公共廣播集團 (Taiwan Broadcasting System) 이 2006 년 7 월 1 일에 성립이 됐을 때 성원이 PTS 와 CTS 만 있었다. 다음 해 7 월 1 일에는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가 가입하였다.

[그림 2] TBS 의 조직



TBS 의 집행위원회는 Taiwan Macroview TV 를 빼고 집단성원인 PTS, CTS, Hakka TV, 그리고 Taiwan Indigenous TV 로 구성되어 있다.

< 표 II-13 > TBS 중요연표

1971	CTS 개국
1998	PTS 개국
2000	Taiwan Macroview TV 개국
2003	Hakka TV 개국
2005	Taiwan Indigenous TV 개국
2006	CTS 공영으로 바꾼 동시에 PTS 과 TBS 를 설립하였다.
2007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도 TBS 에 가입되었다.

실은 대만의 공영 TV 방송의 출범은 늦은 편인 셈이다. 2006 년까지만

해도 공영 TV 방송은 PTS 밖에 없었다. 공영 TV 방송을 설립하자는 제안은 1980 년에 이미 당시 행정원장에게 제출됐지만 무려 18 년이나 걸린 1998 년에야 정식으로 개국이 됐다.

< 표 II-14 > 대만 첫번째 공영 TV 방송 PTS 의 출범과정

1980	행정원장 손운선 (孫運璿) 은 공영 TV 방송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1983	신문국은 “공영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센터 계획초안” (公視節目製作中心計劃草案) 을 제출했지만 경비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
1984	신문국은 공영 TV 방송 제작방송팀 (公共電視製播小組) 을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방송업무를 당시 지상파방송국 TTV, CTV, CTS 가 각각 시간대를 내어 맡겼다.
1986	공영 TV 프로그램의 제작업무는 재단법인 廣電基金의 산하인 공영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팀 (公共電視節目製播組) 에게 맡겼다.
1991	공영 TV 방송 준비위원회 (公視籌備委員會) 정식으로 조직이 되고 公共電視法을 제정한다.
1997	公共電視法을 통과한다.
1998	재단법인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가 운영하기 시작하고 PTS 가 같은 날에 개국이 된다.

참조 : PTS

2006 년 無線電視事業公股處理條例³⁹가 통과된 후에, PTS 설립된 지 8 년만에 CTS 가 두번째의 공영 TV 방송으로 다시 출범하였다. 다음 해인 2007 년이 되자,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가 가입하기 시작했고, 대만의 공영방송집단이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되었다.

³⁹ 매체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정부가 투자하는 사업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법인사업은 지상파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TTV 와 CTV 는 각각 2005 년, 2007 년에 정부와 국민당이 벗어나서 정식으로 민영방송이 되었다. CTS 는 대주주 교육부와 국방부가 벗어나서 2006 년에 대만 제 2 의 공영방송으로 바뀌었다. 한편, 정부예산으로 성립된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도 2006 년부터는 PTS 로 맡겨졌다.

III.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의 경영 형태 비교

3.1 공영 TV 방송의 역할과 형태 비교

3.1.1 공영 TV 방송의 역할

상업 TV 방송과 달리, 공영 TV 방송은 전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즉, 공평한 보도, 공평한 자원나눔, 그리고 공개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V 방송이 단지 오락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차원에서 보다 기여하여 시청자에게 시청하는 동시에 인문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정부기금을 받는 PTS 나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 나, 다 전국민에게서 재원을 받는 방송국이다. 국민으로부터 얻은 재원은 국민에게 써야 한다. 공영 TV 방송이 온 국민에게 '취약 할 의무'는 한국의 방송법과 대만의 公共電視法에서 뚜렷히 정의된다.

< 표 III-1 > 공영방송의 의무

한국	1. 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 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 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대만	1.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평히 국민을 대해줘야 한다. 영리적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2. 국민에게 방송국을 이용하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각종 문화풍속, 예문창작과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의

	균형발전을 보장한다.
	4. 새로운 정보와 관념을 알려준다.
	5.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은 인류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자유, 민주, 법치 등 헌법 (憲法) 의 기본정신에 따라야 한다. 다원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키고 민족의 균형성을 겸해야 한다.

참조 : 한국 「방송법」 제 4 장, 대만 「公共電視法」 제 11 조

다시 정리하자면 공영 TV 방송의 원칙인 공익, 공정, 공평을 전제로 공영 TV 방송의 역할은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정보제공 (교육, 건강, 재해, 인문)
2. 문화보존 및 사회교양의 전승

사회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똑같이 동일시해야 한다. 특히 공영 TV 방송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재해가 발생했을때 공영 TV 방송은 공적인 이름으로 다른 TV 방송과 프로그램을 협력제작하여 재민에게 정신적인 도움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면 공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인력도 줄여서 사회의 자원을 아낄 수 있다.

2011 년 3 월 일본에서 난 지진과 쓰나미는 큰 재해를 일으켰다. 원래 대만의 모든 지상파 TV 방송들이 같이 자선활동을 하기로 했지만 끝내 의견절충에 실패했다. 결국 공영 TV 방송 PTS 와 CTS, 지상파 상업 TV 방송인 CTV 와 다른 케이블 TV 방송들만 참여하였다. 나머지 지상파 FTV 와 TTV 가 다른 케이블 TV 방송과 같이 협력하여 PTS 보다 빨리 자선활동을 하였다.

자선활동을 생방송으로 하겠다고 주최한 공영 TV 방송이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상업 TV 방송인 FTV, TTV 는 그런 프로그램 변경을 허용할 수 없어 퇴출한 추측이 있다. 자선활동은 2 차례로 나누어서 시간,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선활동의 공동참여에 대해서는 FTV, TTV 가 상업 TV 방송이라 공영 TV 방송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답하였다⁴⁰. 이 일의 진실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지만 상업 TV 방송과 공영 TV 방송의 이런 차이점이 잘 드러났다.

⁴⁰ 이에 대해 CTS 가 그것은 없는 일이라고 답했고, 국민 모두가 활동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도와주기만 바란다고 했다.

3.1.2 공영 TV 방송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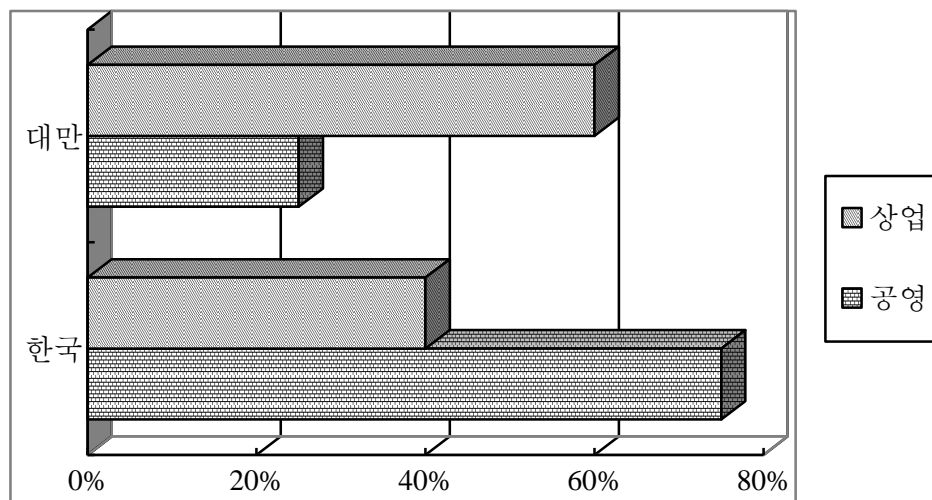
상업 TV 방송의 이윤추구로 갈수록 TV 방송이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시청자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이 전달하고 싶은 것으로 변해버렸다. 특히 대만의 상업 TV 방송은 30 여년이 넘게 과독점하는 바람에 TV 방송의 환경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더 상업적이었다.

그래서 공적인 책임을 갖는 공영 TV 방송이 나타나서 방송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 표 III-2 > 한국, 대만의 지상파 TV 방송

한국	KBS	공영방송
	MBC	
	EBS	
	SBS	
대만	PTS	공영방송
	CTS	상업방송
	TTV	
	CTV	
	FTV	

[그림 3] 대만, 한국의 지상파 TV 방송



표가 제시하듯이 지금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지상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75%이고 대만은 40%로 나타났다. 한국은 38 년 전에 이미 공영 TV 방송이 생긴 반면, 대만의 지상파방송은 30 여년 동안 상업 TV 방송만 존재한 상태였다⁴¹. SBS 가 출범되기 전에도 한국에서 상업 TV 방송들이 있긴 했지만 모두 정책에 의해 공영 TV 방송으로 바뀌거나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⁴².

< 표 III-3 > 한국, 대만의 공영 TV 방송

한국		대만	
KBS	지상파방송	PTS	지상파방송
		CTS	
MBC		Hakka TV	위성방송
		Taiwan Indigenous TV	
EBS		Taiwan Macroview TV	

사실 대만은 2006 년에 이르러 CTV 만 공영 TV 방송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도 모두 공영 TV 방송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3 개는 모두 위성 TV 방송이어서 실제 영향과 받은 주목이 그만큼 크지 않을 뿐이다.

지금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프로그램의 제작은 PTS 에 맡기게 되어서 예전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아직도 실제의 방송 설비가 없어서 PTS 와 같이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

⁴¹ TTV 가 출범된 1962 년부터 공영인 PTS 가 나타난 1998 년까지 대만의 지상파 TV 방송은 전부 다 상업방송이었다.

⁴² 언론통폐합으로 상업인 TBC 가 KBS 에 이전돼서 KBS-2 가 되었다. MBC 는 반 이상의 주식을 KBS 에 줬다.

3.2 공영 TV 방송의 경영 조직 및 법령 비교

< 표 III-4 > 공영 TV 방송의 대주주

	대주주
KBS	대한민국 정부 100%
EBS	
MBC	1. 방송문화진흥회 70%
	2. 정수장학회 ⁴³ 30%
PTS	財團法人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⁴⁴ 100%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CTS	1. 財團法人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83.24%
	2. 財團法人華視文化教育基金會 4.42%
	3. 기타 민영기관 12.34%

경영조직은 대주주로 결정된다. KBS 와 EBS 가 완전한 정부소유이다. MBC 는 유일한 상업 TV 방송이었는데 80 년대에 공영 TV 방송으로 바뀌면서 경영권도 법인에게 맡기게 됐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들의 소유는 모두 재단법인에 속한다.

< 표 III-5 > 공영 TV 조직인원의 임명

	이사회	감사회	이사, 감사 임명	임기
公視基金會	11~15 명	3~5 명	행정원	3 년
KBS 이사회	11 명		대통령	3 년

⁴³ 1962 년에 설립하였다. 원래 이름은 5·16 장학회였다. 1982 년에 박정희의 정(正)자와 그의 아내 육영수의 수(修)자로 정수의 이름을 바꾸었다.

⁴⁴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10 명 (이사 9 명, 감사 1 명)		방송통신위원회	3 년
EBS 이사회	9 명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관련단체 각 1 명을 추천)	3 년

인원의 구성수와 임기는 한국과 대만에서 거의 비슷하다. 다만 대만에서는 이사회와 감사회도 따로 두고 있다.

< 표 III-6 > 공영 TV 방송의 법령

PTS	公共電視法
CTS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KBS	방송법
MBC	방송문화진흥회법
EBS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편, 법령에서 대만 공영 TV 방송들이 똑같이 公共電視法에 의거한 반면에 한국은 각기의 법령에 의한다.

3.3 공영 TV 방송의 재원구조 비교

공영 TV 방송의 원칙은 공정성, 공익성이다. 공공재로서 국민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수용된 정보, 시장지상주의에 따라도 변하지 않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한 방송이다. 주로 국민에게서 받은 재원에 의존하여 국민전체를 목표시청자로 삼아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한다. 특히 소외된 장애인 등 같은 계층에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많은 국민의 기대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공영 TV 방송의 재원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명색은 공영 TV 방송이지만 실은 시장흐름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본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각 공영 TV 방송국의 발전배경과 조직구조를 비교해서 공영 TV 방송의 재원구조를 살펴보았다.

< 표 III-7 > 공영 TV 방송이 국민당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순이	지역	방송국	단위: NTD
1	노르웨이	NRK	3925
2	덴마크	DR	3487
3	영국	BBC	3376
4	핀란드	YLE	3202
5	독일	ARD	2779
6	아일랜드	RTE	2230
7	영국	S4C	1954
8	일본	NHK	1427
9	벨기에	VRT	1226
10	호주	ABC	1103
11	캐나다	CBC	936
12	독일	ZDF	903
13	벨기에	RTBF	809
14	한국	KBS	389
15	홍콩	RTHK	269
16	호주	SBS	235
17	뉴질랜드	MTS	195
18	벨기에	BRF	190
19	뉴질랜드	TVNZ	172

20	폴란드	TVP	154
21	터키	TRT	78
22	남아프리카	SABC	73
23	미국	PBS	70
24	대만	PTS	39

참조 : 「追求共好－新世紀公共廣電服務」, 公共電視策略研發部

대만에서 5 년전까지만해도 PTS 가 유일한 공영 TV 방송이었다. 물론 그후에 CTS 를 비롯하여 총 5 개의 공영 TV 방송사가 공영방송집단이 되었는데도 정부의 기금은 여전히 주로 PTS 에게 준다. 한국도 국가기간인 KBS 에 대부분의 수신료를 준다⁴⁵. 위의 표는 대만 PTS 가 출판된 저서의 내용이다. 국민 한 사람이 공영 TV 방송에서 받은 자금이다. 18 개국 총 24 개 공영 TV 방송 중에 한국 KBS 가 14 위를 차지하는 반면에 대만의 PTS 가 마지막으로 나왔다.

< 표 III-8 > 공영 TV 방송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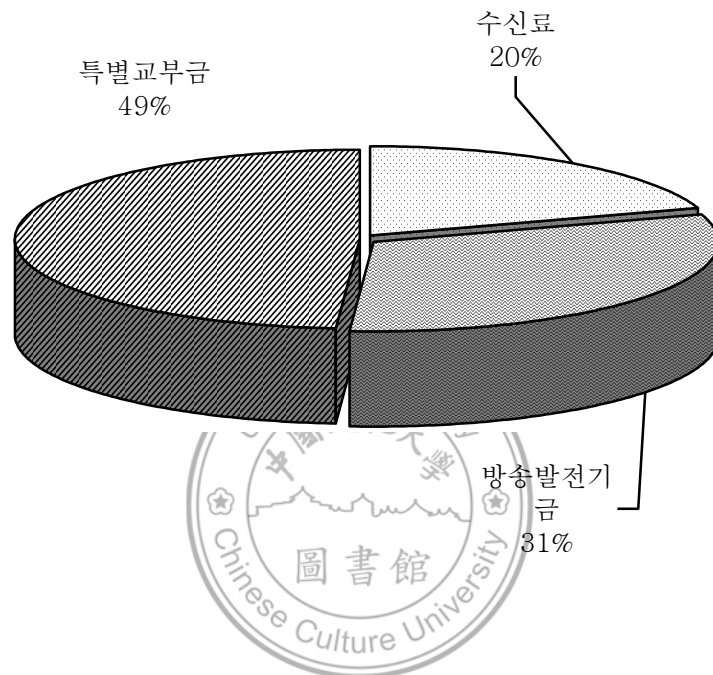
	(공적재원)		광고	기타수입
	수신료	정부보조금		
PTS		60%	0%	40%
CTS	0%		100%	
Hakka TV		97%	0%	3%
Taiwan Indigenous TV		95%	0%	5%
Taiwan Macroview TV		100%	0%	
KBS	40%		60%	
MBC	0%		100%	
EBS		31%	11.4%	57.6% ⁴⁶

⁴⁵ 텔레비전 수신기를 가진 가구당 한 달에 2500 원어치의 수신료를 내야 한다. 수신료를 KBS, 한국전력, 그리고 EBS 에게 또 3 부분으로 배분한다. EBS 가 받은 수신료는 한 달에 70 원이다.

⁴⁶ 2010 EBS 의 재원구조로 보면 기타 상업적 재원 중에 교재출판은 39.5%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미디어는 7.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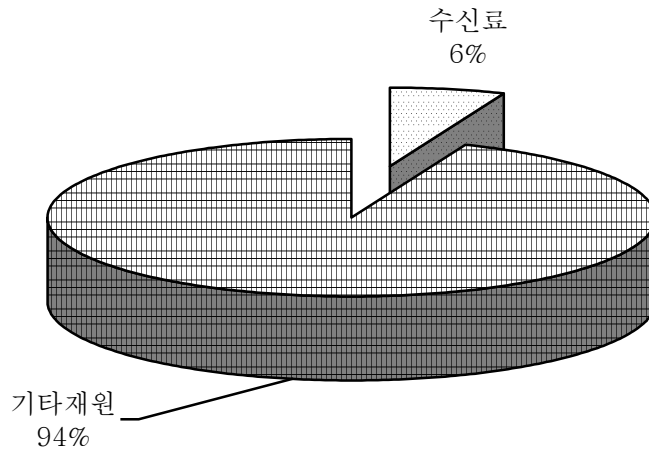
공적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으로 보면 대만 공영 TV 방송들은 한국보다 많다. 물론 여기는 상업체질인 CTS 와 MBC 를 제외한 것이다. 왜냐하면 CTS 와 MBC 는 공영 TV 방송이지만 실은 상업 TV 방송으로 전환해와서 광고를 하여도 공적재원을 전혀 안 받는 방송이기 때문이다.

[그림 4] EBS 의 공적 재원



한국의 공영 TV 방송 KBS, MBC 모두 수신료를 받고 있다. KBS 의 수신료는 공적재원의 전부이고 EBS 의 수신료는 공적재원 중에 한 부분 뿐이다. 공적재원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전부 포함하여야 31%이다.

[그림 5] EBS 수신료가 전체재원에 차지한 비율



실은 수신료는 전체재원중에 6%만 차지한다. KBS 의 40%와 비교하면 반도 안 된다. 그래서 EBS 가 수신료를 인상해 달란 의견도 있다.

< 표 III-9 > 공영 TV 방송 한 해의 수신료 / 정부보조금

단위: 억원 (한원)

KBS	5050
MBC	0
EBS	156
PTS	333
CTS	0
Hakka TV	162.8
Taiwan Indigenous TV	129.5
Taiwan Macroview TV	53.65

참조: PTS, EBS

대만 공영 TV 방송의 공적재원의 비율은 보다 높다. 모두 60%~100%이지만 실은 실제 금액은 한국보다 많이 적다.

공영 TV 방송의 재원은 정부부터로 받은 보조금, 국민한테 인수하는

수신료 (license fee) ⁴⁷, 그리고 광고수입 등이 있다. 대만의 PTS 의 재원은 주로 정부보조금 (state grant) 이다. 처음 한 해는 대만돈으로 12 억이었지만 지금은 9 억원이다.

< 표 III-10 > PTS 재원구조의 변화

단위 : 억 (NTD)

연도	정부기금	기타수입
1998	12 (80%)	3 (20%)
1999	10.8 (75%)	4.2 (25%)
2000	9.72 (65%)	5.28 (35%)
2001~2007	9 (60%)	6 (40%)
2008	4.5 ⁴⁸ (30%)	10.5 (70%)
2009	13.5 ⁴⁹ (90%)	1.5 (10%)
2010	9 (60%)	6 (40%)
2011	9 (60%)	6 (40%)

공적재원을 받는 공영 TV 방송이 있고 광고 등 기타 비공적재원에 의해 생존해야 하는 공영 TV 방송도 있다. 바로 대만의 CTS 와 한국의 MBC 다. 명색은 공영 TV 방송인데 정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도 없고 수신료도 없는 TV 방송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입을 모두 광고수익이나 상품판매에 의존해야 한다. 공영 TV 방송으로서의 공공 책임감이 KBS, PTS 와 같아서 생존이 보다 힘든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이 공적일수록 이해관계나 정부, 그리고 광고주로 독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한국의 공영 TV 방송들의 재원의 반 이상이 상업적인 재원으로 차지하여서 우려를 사고 있다.

⁴⁷ KBS 가 1963 년부터 시청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월 100 원이었다. 수신료이란 명칭은 1989 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⁴⁸ 2008 년 PTS 의 정부보조금을 입법원 (立法院) 에서 동결을 당하여 반만 받았다.

⁴⁹ 한 해 9 억의 보조금과 2008 년 동결되었던 4.5 억을 합쳐서 나온 수치이다.

IV.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 프로그램 비교

4.1 공영 TV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 비교

아무리 질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목표 시청자를 잘못 잡으면 시청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영 TV 방송 자체의 정체성도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편성은 중요하다. 어느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또 방송시간을 얼마나 편성해야 적당한지를, 각 시청자의 선호와 특성을 잘 알아내서 좋은 편성표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각 공영 TV 방송의 편성실태를 연구하였다. 단위는 2010년 가을 개편 이후와 2011년 봄 개편 이후의 주간 프로그램 편성표를 표본으로 한다.

< 표 IV-1 > 한국, 대만 공영 TV 방송 프로그램의 주간총편성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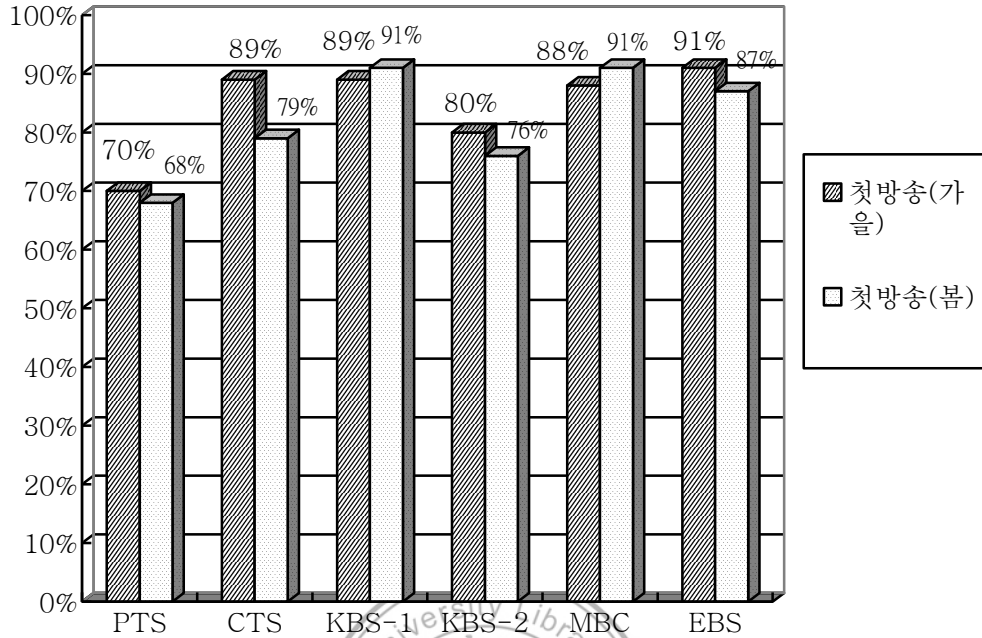
단위: 시' 분"

2010.가을	PTS	CTS	KBS-1 / KBS-2	MBC	EBS
주간총방송시간	162'00"	168'00"	140' / 138'35"	139'20"	136'35"
재방송시간	48'26"	18'00"	15'20" / 27'10"	16'10"	12'20"
2011.봄	PTS	CTS	KBS-1 / KBS-2	MBC	EBS
주간총방송시간	162'00"	168'00"	139'45" / 138'35"	139'20"	138'15"
재방송시간	52'51"	35'00"	13'05" / 33'50"	12'25"	18'05"

위의 표는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을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대만 쪽에서는 PTS 와 CTS 만 제시한다.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는 위성 TV 방송이어서 지상파보다 접근성에서 뒤쳐지고, 영향력 또한 크지 않아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하루 24 시간 일주일 168 시간을 방송하는 CTS 가 방송시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TS도 160시간이 넘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KBS 나 MBC 나, 그리고 EBS 가 모두 150 시간 이하이어서 총방송시간은 대만보다 훨씬 낮다.

[그림 6] 한국, 대만 공영 TV 방송의 첫방송 총시간 추이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내에 계속 재방송으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들의 총방송시간은 한국보다 많지만 재방송시간도 보다 많다.

가을 개편을 보면 EBS의 첫방비율이 제일 높다. CTS와 KBS-1은 같은 89%로 2위를 차지한다. 다음은 MBC는 88%, KBS-2는 80%의 순이다. 대만 제일 중요한 공영 TV 방송인 PTS가 70%의 낮은 비율로 나온다.

봄 개편으로 다시 비교해보면 대만은 CTS만 빼면 각 방송의 비율은 대개 변동이 없어 보인다. 한국쪽에서 KBS-1과 MBC는 각각 2%, 3%가 상승했고, EBS와 KBS-2 각각 4%, 3%가 하락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CTS뿐만 아니라 PTS도 68%까지 하락하여 가을 개편과 봄 개편 모두 첫방 비율은 제일 낮다.

4.2 공영 TV 방송의 수화프로그램 비교

공영 TV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강조되면서, 모든 계층의 시청자에게 좋은 방송을 만드는 의무뿐만 아니라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TV 방송을 시청하기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대만과 한국의 공영 TV 방송 모두 수화로 방송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 표 IV-2 > 공영 TV 방송의 수화방송 편성시간

단위: 분

		뉴스	교양	계
대만	PTS	165	120	285
	CTS	0	0	0
한국	KBS-1	440	55	495
	KBS-2	40	150	190
	MBC	450	50	500
	EBS	75	300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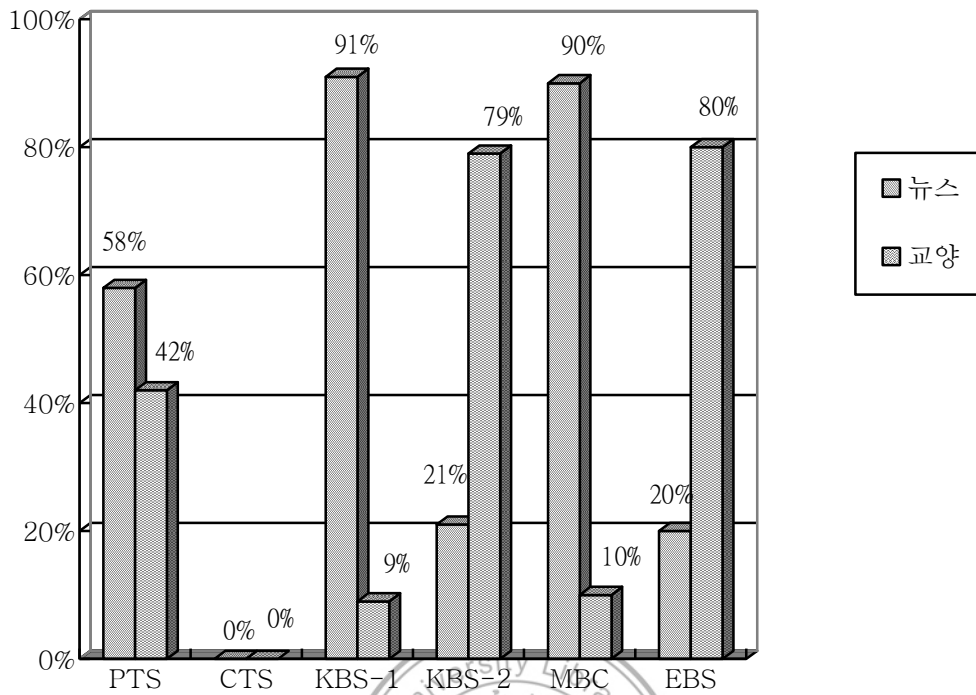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KBS 나 MBC 혹은 교육방송인 EBS 심지어 지상파방송 중에 유일한 상업 TV 방송인 SBS 까지 모두 수화방송을 편성하고 있다⁵⁰. 상업 TV 방송의 위상, 그리고 수신료를 받지 않은 KBS-2 만을 빼고 일주일에 모두 400 분이 넘는 수화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그리고 모두 다 주간 5 일 연속으로 편성하고 있다. MBC 는 6 일동안 편성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방송기간인 KBS 까지도 매일 편성되고 있다. 주간 총편성시간도 645 분으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CTS 가 수화방송을 하지 않고 PTS 가 주간 5 일에 뉴스프로그램을 수화방송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⁵¹ 합치더라도 총편성시간이 285 분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상업방송인 SBS 보다 적다.

⁵⁰ SBS 가 일주일에 수화방송시간은 450 분이다.

⁵¹ 聽聽看는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1995 년부터 방송해온 수화프로그램이다.

[그림 7] 수화방송의 프로그램 분류



주로 뉴스와 교양프로그램을 수화로 방송한다. 대만 유일의 수화방송인 PTS 가 뉴스와 교양프로그램을 모두 방송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쪽에 집중적으로 방송한다. KBS-1 과 MBC 는 뉴스프로그램이고 KBS-2 와 EBS 는 교양프로그램이다.

4.3 공영 TV 방송의 교육 프로그램 비교

4.3.1 교육부문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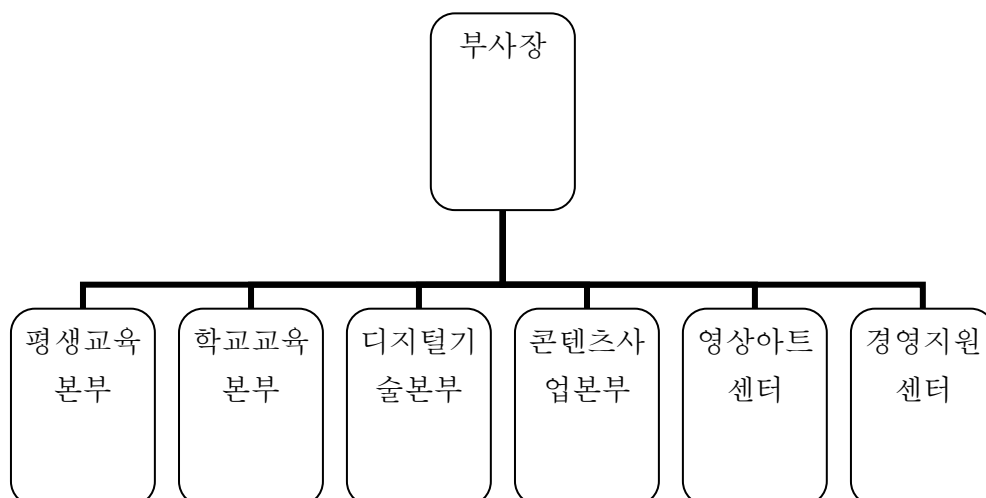
공영 TV 방송의 또 다른 큰 역할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못지 않게 국민에게 교육정보를 전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육 하면 생각나는 방송은 EBS 이다.

EBS 의 2011 전략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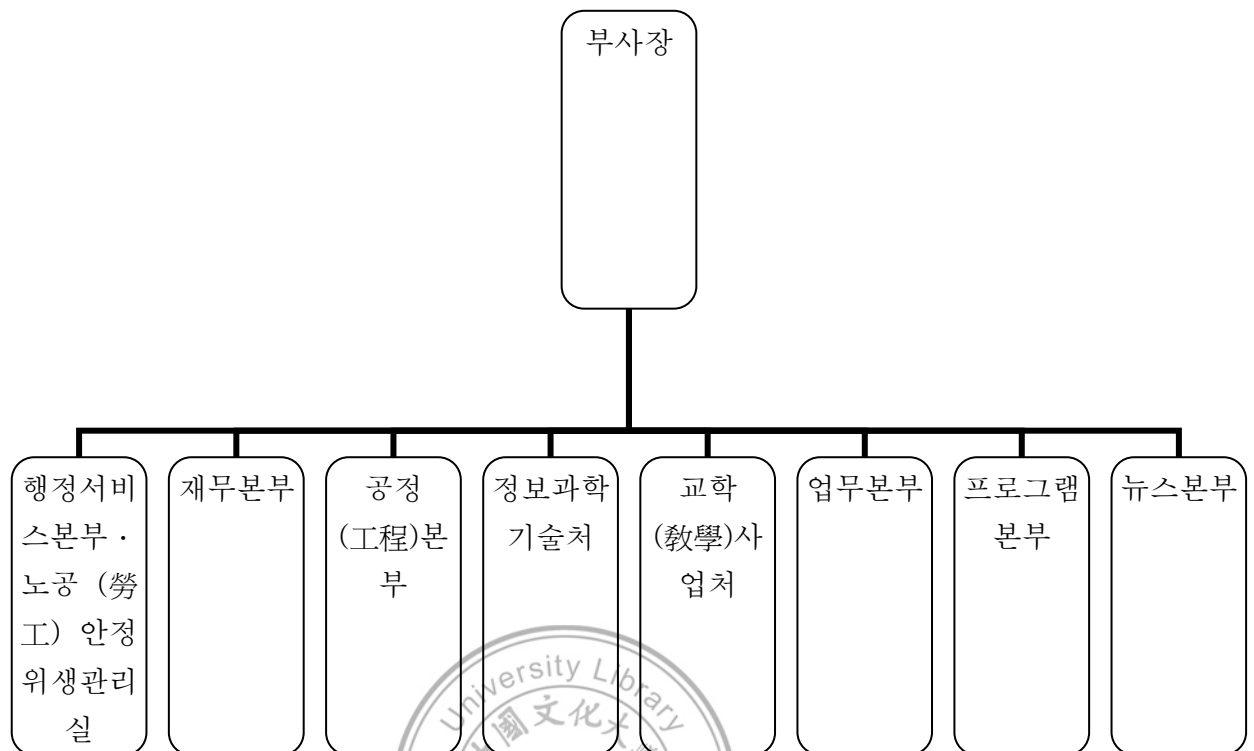
1.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
2.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원
3. 고객과 현장중심 서비스
4. 디지털 교육방송 선도
5. 글로벌교육과 창의교육 선도

EBS 가 교육방송의 이름으로 출범이 된 후,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대만에서 전문적인 교육 TV 방송이라는 것은 없지만 CTS 가 교육부문을 설치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서 한국 EBS 와 비교할 만한 TV 방송이라고 본다.

[그림 8] EBS 경영 조직



[그림 9] CTS 경영 조직



경영조직으로 교육에 관한 부문을 비교하면 EBS가 보다 규모가 큰 것이 눈에 띈다. EBS와 CTS는 같은 부사장 아래 교육부문을 설치하고 있는데 EBS는 평생교육과 학교교육으로 두 본부로 나눈다. 반면 CTS는 한 부문만 설치하고 있다.

< 표 IV-3 > EBS, CTS의 교육부문

EBS		CTS
평생교육본부	학교교육본부	교학사업처
방송운영부	학교교육기획부	기획센터
기획다큐부	출판기획부	프로그램센터
교양문화부	이러닝제작부	
지식정보부	영어교육부	
유아교육부	R 외국어부	
어린이청소년부	R 교육문화부	
	교육뉴스부	

그 뿐만 아니라 EBS 의 2 본부는 각기 6~7 개의 부로 형성되고 있어 업무종류를 자세히 구분하게 된다. 반면에 CTS 의 교학사업처는 단지 2 센터로 되어 있다.

4.3.2 교육채널의 비교

한국의 연 GDP 수치는 대만보다 높지만 학비도 그만큼 비싸서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학생끼리의 경쟁도 보다 치열하다.

< 표 IV-4 > 대학생 한 해 학비

	학비 (달러/학년)		GDP	학비/ GDP (%)	
	국립	사립		국립	사립
대만	1,812	3,305	17,154	10.56	19.27
한국	3,401-7,040	2,137-9,001	20,015	16.99-35.17	10.68-44.97

출처 : 教育部統計處(2007) , 「主要國家之大學生一年學雜費」

대학교학비를 보면 국립이나 사립이나 한국은 대만보다 2 배나 높다. 그래서 연 GDP 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정규교육인 공교육외에 한국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학원을 다니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한다.

< 표 IV-5 > 2007~2009 년 초, 중, 고등 전체의 사교육비

	2007	2008	2009
총사교육비(억원)	200,400	209,095	216,259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22.2	23.3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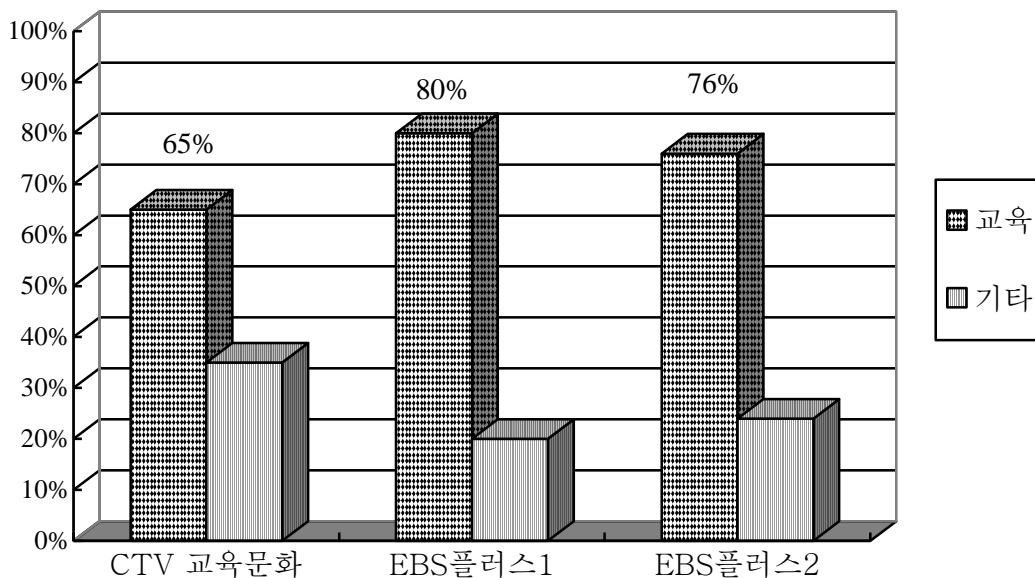
참조: 「2009년 사교육비조사결과」, 통계청

위의 표에 제시된듯이 초,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경제침체로 인해 낮아졌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수치는 학원에 다닌 학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이다.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다닐 수 없는 학생은 포함하지 않았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갈수록 어려워진 경제에다 갈수록 높아진 사교육비를 더욱 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럴 때 특히 공적인 책임인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공영 TV 방송의 필요한 의무이다.

이런 기대에 교육방송인 EBS 가 요즘 들어 사교육을 대체하는 무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시청자는 정해진 시간에, 텔레비전을 켜면 여러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학원에 가거나 따로 돈을 내서 참고서를 살 필요가 없다.

한편, CTS 는 EBS 만큼 교육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 했지만 오래전부터 교육부의 지시하에 원격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여전히 아침시간대에 교육프로그램 한 시간을 방송하고 있다. 몇 년 전에 지상파의 디지털에서 채널을 하나 더 개설하였다. 바로 교육문화채널이다. 하루 방송시간이 23 시간에다 거의 교육프로그램만 방송한 교육채널이고 목표시청자의 나이 층도 넓혔다. 이것은 대만 TV 방송의 하나의 새 출발이라고 해도 된다.

[그림 10] EBS, CTS 교육채널의 교육프로그램 비율



EBS-1,2 보다 교육문화채널의 교육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50%를 넘어서 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을 잘 맡고 있다. 그런데 매체접근성 (Public Access) 에서는 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다. 본 연구는 연구를 통하여 두 가지 원인을 찾아냈다.

1. 디지털채널
2. 시청자의 구분

먼저, 교육문화채널은 디지털채널이라 셋톱박스 (Set Top Box) 를 설치하고 있는 가구만 시청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시청자가 접근하기에 유선 TV 방송이나 위성 TV 방송보다 어렵다. 마지막은 EBS 는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시청자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반면에 CTS 는 지상파에서 주간 5 시간만 방송하여 교육채널은 거의 모든 연령 층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표 IV-6 > EBS, CTS 의 교육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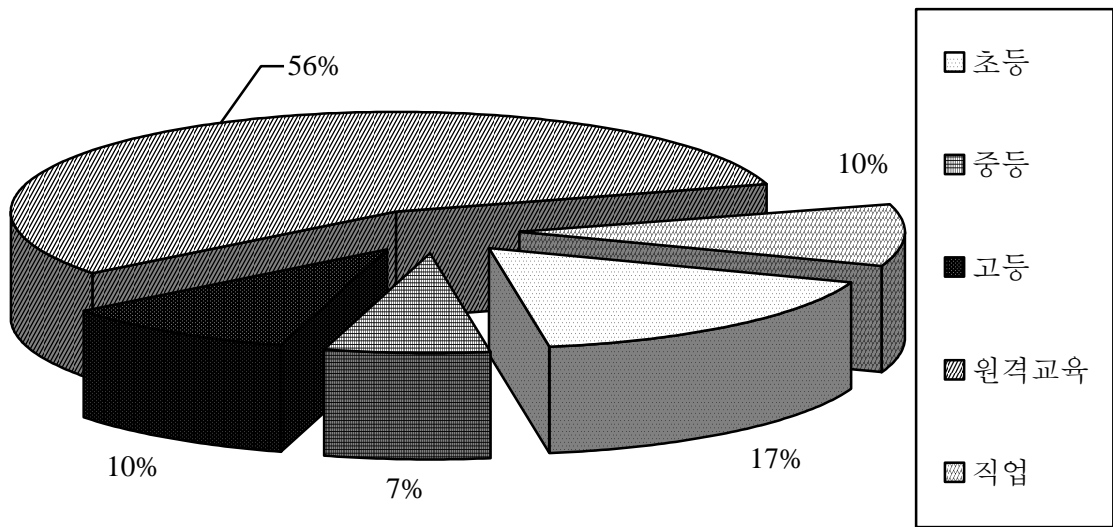
EBS	EBS-1	고교수능전문	위성방송
	EBS-2	1. 초등학교, 중등학교 2. 직업	
	EBS English	영어학습	
CTS	교육문화채널 ⁵²	1. 원격교육 (Distance Education) 2. 초등, 중등, 고등 3. 직업	디지털방송

위 표에서 제시한듯이 지상파채널을 제외한 EBS 가 위성채널을 갖추고 있다. EBS English 가 영어학습이고 EBS-1,2 가 입시시험을 위한 수학, 국어, 자연 등의 과목을 방송하는 채널이다. 채널 3 개가 각각 다른 시청자층을 맡아서, 각기의 채널위상을 잘 드러낸다.

반면 CTS 의 시청자 분류도 EBS 과 비슷와 심지어 원격교육까지 하고 있지만 채널 하나만 모든 시청자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는 것은 실은 어렵고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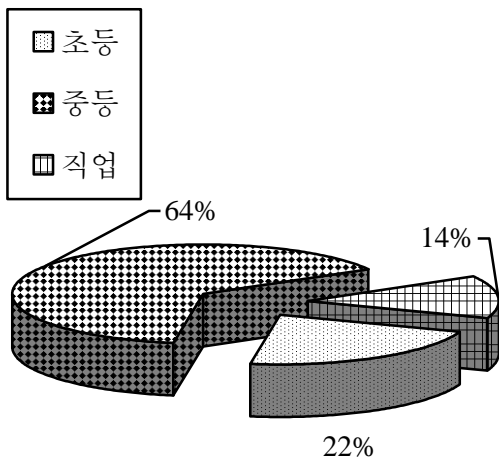
⁵² 대만에서 유일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림 11] CTS 교육문화-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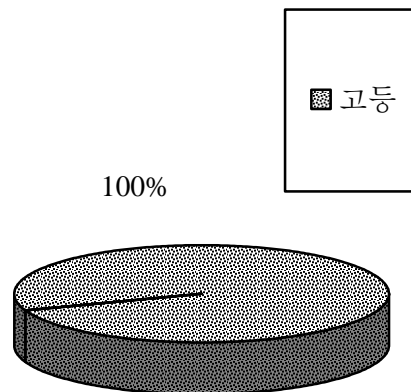


교육문화채널은 초등, 중등, 고등, 직업, 그리고 원격교육의 시청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므로 감당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원격교육이 반 이상을 차지하여 나머지 정규교육의 비율은 더욱 낮다.

[그림 12] EBS-2 교육프로그램



[그림 13] EBS-1 교육프로그램



반면에 EBS 가 고등학교쪽에 채널을 하나 두고 하나는 초등, 중등,

그리고 직업쪽도 맡아서 각 시청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대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다.

< 표 IV-7 > EBS, CTS 교육채널의 목표시청자

순위	EBS	CTS
1.	고등	초등
2.	중등	고등, 직업
3.	초등	
4.	직업	중등



V.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의 난점과 개혁 방향

5.1 공영 TV 방송의 난점

“공영방송은 자신의 존속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며 각종 경영효율화와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공영방송도 이윤추구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자본의 논리는 완전한 승기를 잡게 된다. 이러한 상업화 추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류매체로서 지상파 방송은 어느 정도 공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으나 그 역할이 점점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³⁾”

공영 TV 방송은 공적인 책임과 시장주의 사이에서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시청자가 이미 소비자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공영 TV 방송이 시장 흐름에 따라 잘 팔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를 신경쓴다. 처음부터 상업 TV 방송이 못 해주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약속들도 이제 다시 시대에 따라 맞춰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오락프로그램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시청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공영 TV 방송도 시장에 따라 차츰차츰 조정해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맞추기만 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을 끄는 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다. 공영 TV 방송도 상업 TV 방송에 따라 똑같이 오락성이 가득 담긴 내용으로 시청률을 자극하는 것은 실은 바보짓이다. 왜냐하면 다들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목표시청자도 같이 나눠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영 TV 방송들 중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가 된 EBS 를 빼고 나머지 MBC 와 KBS 가 지금은 시장이윤의 추구하고 공적인 책임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다. 다른 선진 나라들의 공영 TV 방송도 사대에 맞춰 공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시장이윤도 동일시하는 태도로 보인다. 그래서 시장지상주의로 인해 공적인 책임을 잃어버리거나 공적인 책임을 지키기 위하여 이익을 추구하지 않다가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도 적당히 맞추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반면에,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애초부터 국민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⁵³⁾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강형철, 양승찬

제공하기 위해 출범이 되어서 한국처럼 공적인 책임과 시장주의 사이에서 곤란에 빠지지 않았다. 매년 제출한 보고서와 다른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공영 TV 방송에 대한 평가도 높은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발전이 늦은 만큼 다른 나라보다 자금도 적고 인지도와 시청률도 낮다.

< 표 V-1 > 한국, 대만 공영 TV 방송의 비교

	한국	대만
인지도	높다	낮다
시청률	높다	낮다
광고	KBS-1 만 안 한다	CTS 만 한다
자금	충분, 안정	부족, 불안정
평가	갈수록 불만이 많아진다	높다

한국과 대만 공영 TV 방송의 난점은 다르다. 한국 공영 TV 방송은 대만보다 25 년이나 길어서 인지도나 시청률도 역사만큼 높다. 자금도 수신료를 받고 있어 안정적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윤의 압박을 못 견디게 되었다. 공영 TV 방송들 중에 겨우 KBS의 KBS-1 만 광고를 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불만도 점점 높아져서 공영 TV 방송 생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야기한다.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된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공적인 책임과 시장이윤 추구의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잘 잡을까 하는 것은 이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표 V-2 > 2010년 3/4 분기 대만 TV 채널의 점유율

순위	채널명	점유율
1	FTV	10.27
2	SETV 주채널	6.20
3	TTV	4.07
4	CTV	3.90
5	SETV 뉴스채널	3.35
6	TVBS 뉴스채널	3.06
7	CTS	2.87
8~27		

28	PTS	1.24
----	-----	------

참조: 「公共電視節目收視分析季報告 (2010年 第三季)」, 公共電視企劃部

반면,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아직 미성숙하여 근본적인 자금문제를 해결하고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PTS 의 한 조사를 따르면 TV 채널 중에서 63 개를 뽑아 점유율을 살펴보면 공영 TV 방송 중 겨우 PTS 와 CTS 만 순위 안에 들어간다. PTS 가 가장 대표적인 공영 TV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28 순위로 나타나서 공영 TV 방송의 영향력을 아직 국민에게 제대로 잘 못 준다.

5.2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의 개혁 방향

5.2.1 채널 위상의 재정리

소비자지상주의를 여기는 요즘의 방송환경에서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하는 공공 TV 방송 역시 편성전략을 바꾸고 있다.

정부나 국민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인 공공 TV 방송 또한 이해관계에서 탈피해 탈정치화 되면서 자체의 정체성은 이미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바로 KBS 다.

물론 수신료가 많을수록 많으면 광고수익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자원이라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제 공공 TV 방송 자체의 존재까지도 모호해져서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부나 국민들의 지원을 받지만, 상업 TV 방송과 다를 바 없이 시청률을 높이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 TV 방송을 아예 민영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MBC 와 KBS-2 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일부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무늬만 공영방송이란

얘기도 있었고 KBS2 도 그게 무슨 공영방송이냐, 상업방송이지.⁵⁴”

MBC 와 KBS-2 는 명색이 공영 TV 방송이지만 광고도 내보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오락적인 편이어서 다른 상업 TV 방송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반면에 KBS-1 는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 시청자의 인정을 받고 있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들은 늦게 출범이 됐지만 오히려 이런 의문은 아직 일으키지 않았다. 물론 CTS가 공영 TV 방송으로 바뀐 후에 계속 상업성을 띄고 있지만 위상의 정의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06년 10월 25일에, 공영방송집단은 CTS의 위상에 관해 4가지 합의를 이뤘다.

1. 공영방송집단 성원중의 하나로서 동시에 공공가치와 상업수익도 함께 겸해야 한다. 공공가치적이면서 시청률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2. 장기적으로 방송브랜드를 경영하고 연령층 별로 목표시청자를 구분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공가치의 각도에서 위상의 정의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3. 공영방송집단인 CTV는 공공가치를 다시 정의해서 동시에 창의력을 키우고 상업목표도 이룬다.
4. 공영방송집단인 CTV는 간접광고를 하지 않는다. 상업활동이 필요한 정보는 다 업무부에서 맡겨서 정리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한다.

2007 년 TBS 가 성립되면서 프로그램계획 이념을 제시하였고, 공영방송집단의 성원에 대한 기대도 표했다.

대만 공영방송집단은 성립 이후 매체의 가치를 다시 높일 것이다. 새로운 공영방송문화를 시작해서 대만매체의 상태를 바꾸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사명으로 삼는다. PTS 와 CTS 는 각자 원래의 특성이나 장점으로 다른 발전전략을 조정할 것이다. PTS 는 인문정보의 채널로 계속 배려와 정보서비스의 역할을 맡을 것이고, 상업방송이었던 CTS 는 TBS 에 가입한 후에 생활오락의 종합채널로 시청자를 가족처럼 모시고 생활에 더 많은 기쁨과 따뜻함을 주는데 노력할 것이다.

공영 TV 방송의 위상은 바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뚜렷한 각각의 차별성(distinctiveness)⁵⁵을 갖고 있어야 시청자를 오래오래 붙들

⁵⁴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장 고흥길.

⁵⁵ PSBs around the world are constantly seeking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share and

수 있다.

< 표 V-3 > 공영 TV 방송의 채널위상

	시사교양	종합오락	교육
한국	KBS-1	MBC	EBS
		KBS-2	
대만	PTS	CTS	CTS 교육문화

시사교양, 종합오락, 그리고 교육을 나눠서 보면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 중에는 각각의 대표적인 채널이 있다. KBS-1 와 PTS 는 똑같은 최초의 공영 TV 방송으로서 시사교양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종합오락 분야에서 한국의 MBC 와 대만의 CTS 는 위상뿐만 아니라 배경도 비슷하다. 둘 다 상업 TV 방송으로 출범했다가 공영 TV 방송으로 바뀌었지만 공적인 재원을 받지 않고 광고를 내보내는 등 상업성을 띄는 TV 방송이다. 한편, KBS-2 의 위상도 종합오락이다. 그래서 같은 종합오락으로서 어떻게 나름의 특질을 만들까 하는 것은 과제가 된다. 마지막 교육의 분야에서 보면 EBS 와 CTS 이다. 여기에 대만은 해결할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접근성에 관한 문제다. 교육문화는 디지털 TV 방송이라서 셋톱박스를 가지고 있는 가구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다. 대만에서는 유일한 교육전문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나 유선보다 접근이 어려워서 영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한다.

한편, 다원문화사회인 대만은 한국의 공영 TV 방송이 없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TV 방송이다. PTS, CTS 를 제외한 2007 년부터 TBS 에 가입된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Taiwan Macroview TV 는 뚜렷한 위상으로 각각의 목표시청자를 잡고 있다.

< 표 V-4 > 대만 TBS 의 목표시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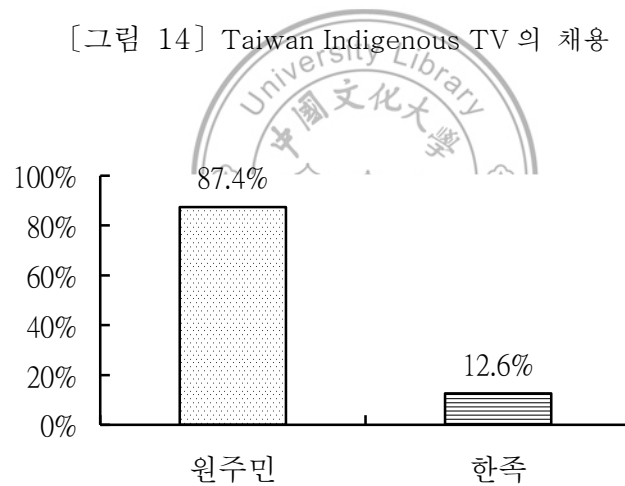
	상대	언어
PTS	온 국민	중국어, 대만어

distinctiveness. While commercial broadcasters have the relatively straightforward task of cost-effectively capturing share in the most attractive segments. PSBs have a different challenge. They must have a distinctive mix of programming; one that links to their society's overall aims for their market and therefore... - McKinsey, 1999

CTS		
Hakka TV	하카족	하카어
Taiwan Indigenous TV	대만원주민	대만원주민어
Taiwan Macroview TV	국외교포	중국어, 대만어, 하카어, 광둥어,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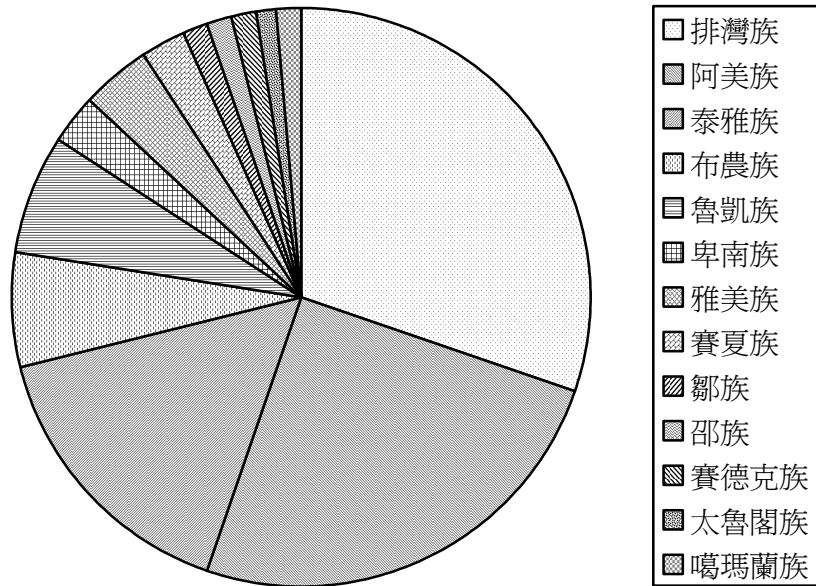
TBS 성원인 PTS, CTS와 달리, Hakka TV와 Taiwan Indigenous TV는 주로 중국어나 대만어로 방송하지 않고 각자 하카어와 원주민어로 방송한다. 그것 뿐만 아니라 방송사 인원도 주로 하카족과 원주민을 채용하여 한때 소외계층이었던 이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림 14] Taiwan Indigenous TV의 채용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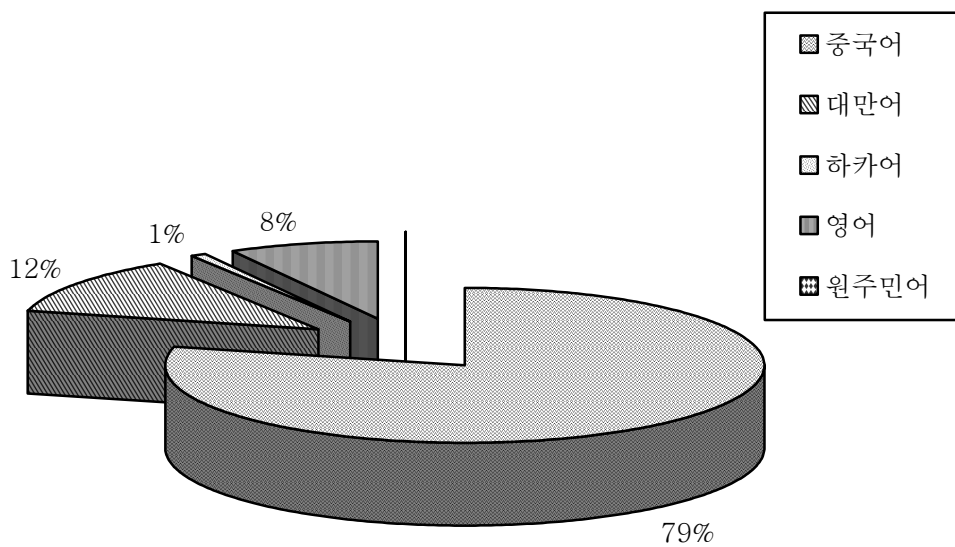
참조 :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Annual Report」, PTS

[그림 15] Taiwan Indigenous TV 가 채용하는 원주민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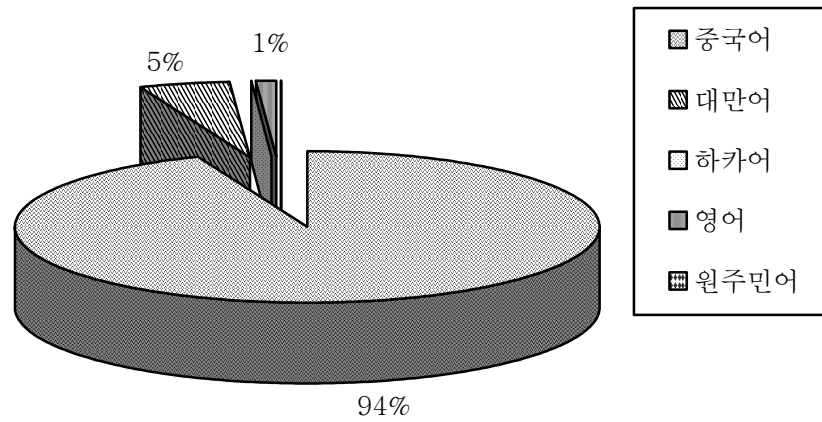


참조 :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Annual Report」, PTS

[그림 16] PTS 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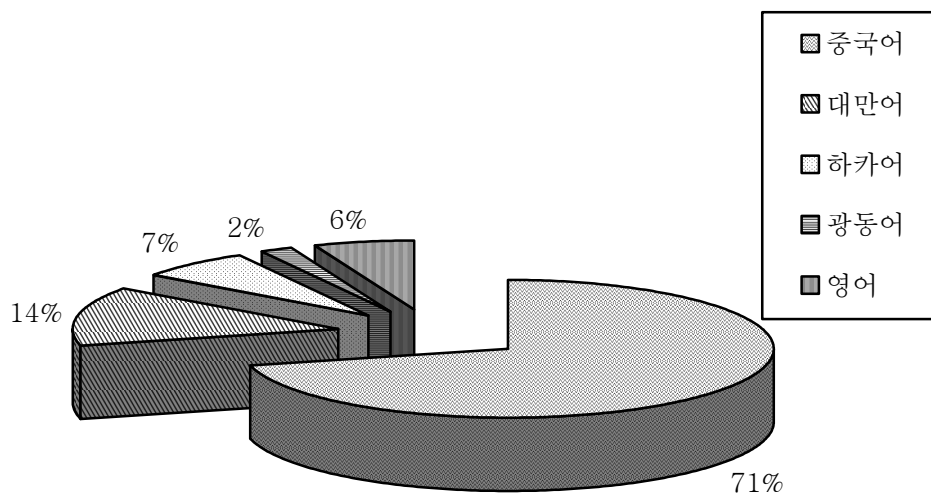


[그림 17] CTS 의 프로그램



그런데 PTS 와 CTS 등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 것을 생각하면, 하카어와 원주민어의 비율은 여전히 낮고, 기회 또한 많지 않다. PTS 와 CTS 는 대부분 중국어와 대만어로 방송한다. 하카어와 원주민어의 비율은 오히려 영어보다도 낮다. 또한 PTS 는 아예 원주민어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는다.

[그림 18] Taiwan Macroview TV 프로그램



TBS 중 가장 다양한 언어로 방송하는 것은 Taiwan Macroview TV 이다. Taiwan Macroview TV 는 주로 외국에 있는 해외교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계를 연결하여 모든 중화권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

TBS는 주로 중국어, 대만어, 하카어 등 대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영어, 광둥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방송 대상을 대만인을 포함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중화권을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표 V-5 > PTS, CTS,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프로그램의 언어편성

순위	PTS	CTS	Taiwan Macroview TV
1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2	대만어	대만어	대만어
3	영어	영어	하카어
4	하카어		영어
5			광둥어

PTS, CTS,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의 언어순위를 보면 순위 1 과 2 는 똑같다. 이 결과도 대만에서 사용한 언어의 순위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3 순위는 PTS 와 CTS 가 영어로 차지하고 있다. PTS, CTS 는 Taiwan Macroview TV 와 달리, 국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영 TV 방송이다. 그래서 하카어와 원주민어로 한 프로그램의 비율이 더욱 더 높여야 한다.

5.2.2 타기업과의 제휴와 자회사의 건립

공영 TV 방송들은 현재 상업 TV 방송과 경쟁하기 위하여 다각화 경영에 입각하게 되었다.

< 표 V-6 > 공영 TV 방송의 다각화경영

MBC	MBC+ MEDIA (미디어)	자회사
	MBC PlayBe	

	(에듀테인먼트)	
	MBC 프로덕션 (엔터테인먼트)	
	Imbc (온라인 방송 미디어)	
	MBC 미술센터 (미술 사업)	
	MBC 아카데미 (문화, 방송 교육)	
	MBC 미디어텍 (미디어)	
KBS	KBS 비즈니스 (방송시설 수탁 및 관리)	자회사
	KBS 미디어 (미디어)	
	KBS 아트비전 (문화, 디자인)	
	KBS 미디어텍 (방송프로그램 제작)	
	EBS 원격교육연수원 (교육)	자회사
EBS	SKY platform (콘텐츠 DB 플랫폼)	제휴사
	MS (콘텐츠 DB 플랫폼)	
	매니저소사이어티 (경영전문 교육)	
	국제 토셀 위원회 (영어능력인증시험 TOSEL)	
	아리수 미래사랑 (에듀테인먼트)	
	교보문고 (콘텐츠 판매)	
	두산동아 (EBS 교육콘텐츠, 출판교재)	

	판매)	
	잉카엔트웍스 (EBS 교육콘텐츠 판매, MP3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아이코닉스 (애니메이션)	
	올리브스튜디오 (캐릭터)	
	오콘 (캐릭터)	
	알지애니메이션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캐릭터플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훌훌리 (애니메이션)	
	대원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위즈온 랭귀지 (화상영어 서비스 제공)	
	영상네트워크 스포에듀 (교육전문 쇼핑몰)	
	미디어센터 한국산학경영연구소 (미디어)	
	서울머천다이징컴퍼니 (캐릭터)	
	미라클상사 (영상물)	
	톨 잉글리쉬 솔루션 (영어사업)	
CTS	CTS 훈련센터 (華視訓練中心) ⁵⁶ (교육)	자회사
	CTS 문화회사 (華視文化公司) ⁵⁷	

⁵⁶ 1984 년에 1.문화예술 인재 양성 2. TV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 3.사회교육 홍보와 국민생활환경을 증축 4.국민의 문화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미디어)	
--	-------	--

대만보다 한국의 공영 TV 방송들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들과 제휴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MBC 의 비전은 글로벌 멀티미디어 그룹이 되는 것이다⁵⁸. MBC 는 방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지상파, 위성, 케이블 TV 방송과 DMB 에 투자하고 있다. KBS 도 그에 못지않게 자회사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출자하고 신문, 통신영역에도 참여하고 있다. EBS 의 자회사는 겨우 하나지만 다른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서 경영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만에서 공영 TV 방송의 다각화 경영은 여전히 시작단계이다. PTS 는 어떤 자회사나 출자회사도 없다. 다만 CTS 는 자회사 2 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였으므로,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표 V-7 > 인터넷 온라인 방송서비스

		회원가입	요금
한국	KBS	필요	무료
	MBC		
	EBS		
대만	PTS	제공하지 않음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필요 없음	무료
	Taiwan Microview TV		
	CTS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모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회원제이다. 그래서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영상제작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⁵⁷ 정부가 주최하는 활동을 계획, TV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제작, 국내외에 TV 방송프로그램 발행함 등의 업무를 맡는 문화기업이다.

⁵⁸ 글로벌 멀티미디어 그룹을 이루기 위하여 MBC 는 “수익 최적화”, “콘텐츠와 뉴미디어 특화”, “시청자 중심주의”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온라인 방송 서비스에 아직 미성숙하다. 가장 대표적인 PTS 는 온라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공영 TV 방송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시청가능하여, 저작권 보호에 완비화되지 않았다.

< 표 V-8 > 공영 TV 방송의 견학

		견학방식		견학시간
		개인	단체	
PTS		1~14 명 예약 필수	15~50 명 예약 필수	월~금 (명절 휴관) 1. 오전 10 시 2. 오후 2 시
Hakka TV		1~14 명 예약 필수	15~40 명 예약 필수	월~금 (명절 휴관) 1. 오전 10 시 2. 오후 2 시
Taiwan Indigenous TV		1~40 명 예약 필수		월~금 (명절 휴관) 1. 오전 9:30~12:00 2. 오후 1:30~ 6:30
KBS		1~10 명 예약 필요 없음	11 명이상 예약 필수	월~일 (명절, 첫째주 월요일 휴관) 오전 9:30~오후 5:30
MBC	1.여의도방송센터	10~30 명 예약 필수		월~금 (명절 휴관, 격주 목요일은 오전 10, 11 시가능) 1. 오전 10 시.11 시 2. 오후 2 시.3 시
	2.일산드림센터			격주 목요일 오후 2:00~3:00
EBS		20 명이하 예약 필수		월~금 (명절 휴관) 1. 오전 10:30 (유치원,초등,중학생) 2. 오후 3:30 (교사, 대학생, 방송반)

방송서비스의 제공 외에도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것도 공영 TV 방송 자체 브랜드의 경영방식이다.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모두 견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MBC 는 여의도와 일산지역 두

군데의 견학장소를 두고 있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PTS, Hakka TV, 그리고 Taiwan Indigenous TV 만 견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에서 공영 TV 방송의 견학방식과 시간은 별 차이가 없다. 위에 제시한 방송 중 KBS 는 국가 기간 공영 방송으로 접근성도 그만큼 높다. 단체로 예약하지 않아도 거의 매일 견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5.2.3 사회공헌사업의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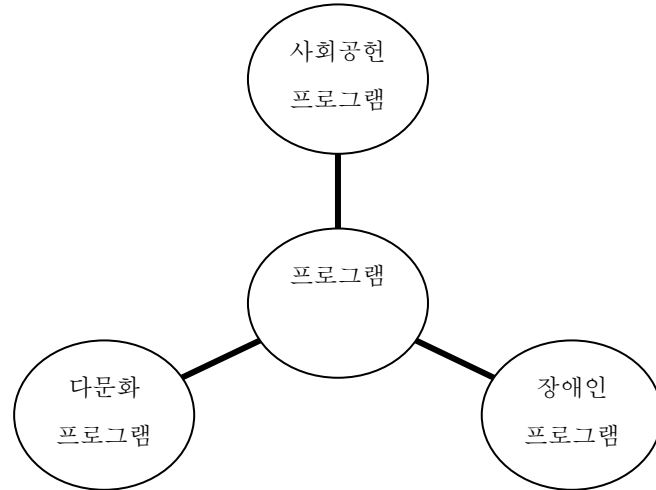
앞에 언급한 듯이 공영 TV 방송은 이제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발을 뻗혀서 브랜드처럼 경영해야 한다. 사회에게서 얻는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공영 TV 방송도 자연스럽게 다른 기업과 똑같이 사회공헌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 표 V-9 > 공영 TV 방송의 사회공헌

KBS	2010 년	KBS 디딤돌 봉사단
		KBS 재능나눔 봉사단
		KBS 버스투어
	2002 년	강태원복지재단
		생명나눔 캠페인
		아동사랑 기업 네트워크
MBC	2005 년	사회공헌팀
	2007 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EBS	2010 년	사회공헌팀
PTS		공익활동간판 (公益活動看板)
		공익사이트 (公益網)
		탁월뉴스대상기금회 (卓越新聞獎基金會)
		PeoPo 공민뉴스대상 (PeoPo 公民新聞獎)

한국에서는 MBC 가 사회공헌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공영 TV 방송이다. MBC 가 1992 년에 좋은 한국인상을, 2003 년에는 MBC 사회봉사대상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05 년에 사회공헌팀을 결성하였다.

[그림 19] EBS 사회환원을 위한 프로그램



						수혜인원 (명)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혜인원	28,544	39,980	110,000	110,000	28,000	220,000

< 표 V-10 > 지방 읍·면 및 저소득층 자녀 (고교생) 수능교재 무료 제공

출처 : EBS

EBS 도 2010 년에 사회공헌팀을 결성해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 TV 방송으로서 소외된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다.

KBS 는 사회공헌팀을 결성하지 않았지만 공영 TV 방송 중에서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방송이다. 그밖에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매 해 사회환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려고 한다.

반면에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사회공헌팀을 결성하지 않고 사회활동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TV 방송과 협력하여 모은 돈으로 재민을 도와준다. 평소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조직은 비영리조직으로 공익적인 사회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공익 플랫폼만을 제공한다. 국민에게는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을 통하여 비영리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정보를 알려줄 뿐이다.

5.2.4 시대에 맞추기 위한 디지털화

디지털시대에 들어가면서 공영 TV 방송은 시대에 맞추기 위하여 디지털화하게 되었다.

2003 년 KBI⁵⁹ 가 연구보고서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를 발표하였다 :

< 표 V-11 >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우월적 지위에 따른 문제점

구분	문제점
매체간 불균형 발전	지상파 방송 3사가 콘텐츠의 우위를 기반으로 케이블 TV의 PP 사업자로 진출하여 새로운 방송시장에서도 강자로 군림 (현재 KBS, MBC, SBS가 각각 3 채널 등 총 12개 채널 운영) 위성방송 사업의 지분참여로 인해 매체 간 공정경쟁 저해 우려 (KBS 10%, MBC 6%, SBS 1%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총 17% 지분 참여)
비효율적 자원 분배	지상파 DMB 등 신규 디지털 방송에 대한 진입장벽 설정을 통해 기존 지상파 방송의 프리미엄 강화 프로그램 제작, 편성, 송출 시스템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경영 효율성 저하 및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하락 방송사의 위장 계열사, 연예기획사 등이 주도하는 기형적 외주제작이 증가함으로써 프로그램 제작비의 과도한 상승과 무분별한 간접광고 삽입 초래
광고시장 장악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 프로그램 저작권 독점으로 인해 유통구조의 왜곡과 독립제작사의 제작의욕 감퇴 KBS와 MBC의 전체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을 광고수익이 차지함으로써 공영방송 중심의 현 방송체제를 무색하게 하면서 광고시장 장악 (2002년 기준 KBS는 총매출액의 57%, MBC는 총매출액의 92%를 광고수익 차지)
수용자	지역방송과 케이블 TV의 광고단가 약세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우월적 광고시장 장악 지속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청률 경쟁을 의식한 의도적 대응편성으로

⁵⁹ 한국방송개발원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 1989년 방송 문화의 발전을 위한 설립된 연구기구이었다. 주요업무는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과 방송 인력의 개발 지원 등 있었다.

선택권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기회 제한
제한	케이블 TV 의 지상파 드라마 재활용으로 인해 독립 PP 들이 양질의 국산 프로그램 제공기회 약화와 자생력 상실 (2003 년 6 월 현재 지상파의 케이블 TV 계열사들이 시청률 상위 10 위 중 5 개 순위 차지)
지역방송	중앙 네트워크 방송사로부터의 경영 및 프로그램 편성 의존도 심화
중속구조 심화	독점적 프로그램 공급 계약 유지로 인해 지역문화 매체로서의 역할 제한 (현재 KBS 는 직할국, MBC 는 계열사, SBS 는 가맹사 체제)

출처 : 윤호진 (2003, 46 쪽)

보고서에서는 주로 지상파 TV 방송의 보다 우월적인 지위가 한국의 TV 방송에 끼친 나쁜 영향을 제시했지만, 한국의 지상파 TV 방송이 대만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 지상파 TV 방송의 우세를 대체로 3 가지 나눈다.

1. DMB⁶⁰의 발전
2. 케이블과 위성방송의 진출
3. 광고시장의 장악

한국과 대만에서 공영 TV 방송을 비롯한 DMB 의 발전은 요 몇 년 사이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은 한국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회⁶¹ 를, 대만은 대만디지털텔레비전협회⁶²를 설립하여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표 V-12 > 지상파의 DMB 채널

대만		한국	
TTV	TTV	KBS	STAR (1TV)

⁶⁰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즉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해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수신기이다. “손안의 TV”라고도 불린다.

⁶¹ 약칭은 DTV KOREA (Digital Television Korea) 이다. 2008 년에 설립하게 되었다.

⁶² 약칭은 DTVC (Taiwan Digital Television Committee) 이다. 2005 년에 설립하게 되었다. 전신은 1998 년 설립한 臺灣數位電視委員會이었다.

	綜合臺		
	財經臺		
CTV	CTV		HEART (2TV)
	綜藝臺		
	新聞臺		
CTS	CTS	MBC	MY MBC
	教育文化臺		
	休閒臺		
FTV	FTV		
	新聞臺		
	交通臺		
PTS	PTS	SBS	SBS@
	DIMO TV		
	Hakka TV		
	HiHD		

한국의 지상파 TV 방송들은 EBS 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한 개의 DMB 채널을 갖고 있다. 대만의 지상파 TV 방송들은 모두 DMB 채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3~4개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케이블과 위성 TV 방송의 진출에서 보면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한국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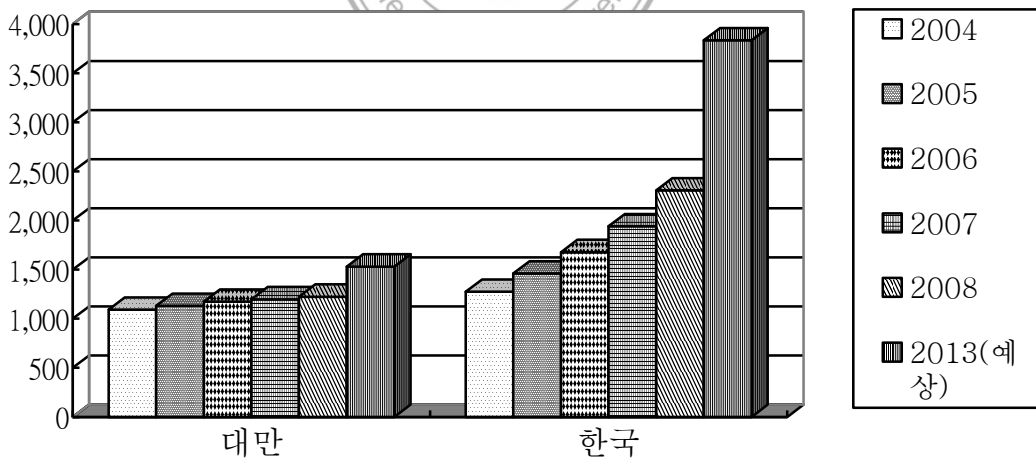
< 표 V-13 > 자상파가 케이블, 위성에 진입

		위성	케이블
대만	TTV	國際臺	
	CTV		
	CTS		
	FTV		新聞臺
	PTS		
한국	KBS	KBS WORLD	KBS WORLD
	MBC	MBC 드라마넷	MBC 드라마넷
		MBC every1	MBC every1
		MBC 게임	MBC 게임
		MBC SPORTS ⁺	MBC SPORTS ⁺

	SBS	MBC Life	MBC Life
		SBS Golf	SBS Golf
		SBS ESPN	SBS ESPN
		SBS Plus	SBS Plus
		E!Entertainment Television	E!Entertainment Television
	EBS	EBS 플러스 1	EBS English
		EBS 플러스 2	
		EBS America	
		EBS Eng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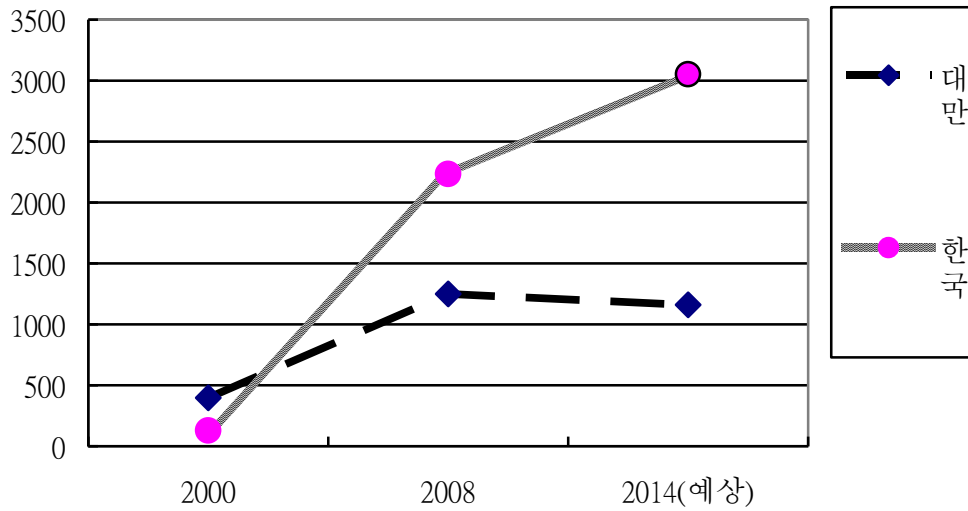
보고서의 케이블과 위성 TV 방송의 진출을 살펴보면 한국 공영 TV 방송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만은 그 반대이다. 대만의 지상파 TV 방송 중 TTV 와 FTV 등 상업 TV 방송만 각기 위성, 케이블에 경영하고 있을 뿐이고 PTS 와 CST 는 지상파 방송만 경영하고있다.

[그림 20] 유료 TV 시장규모 변화



참조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실태조사 I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6 쪽」,
 한국콘텐츠진흥원
 본 연구 표로 재구성

[그림 21] 유료 TV의 수익변화



참조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실태조사 I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197 쪽」,
 한국콘텐츠진흥원
 본 연구 표로 재구성

한국의 공영 TV 방송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위성, 케이블에도 진출하여 TV 방송에서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공영 TV 방송 또한 유료 TV 방송시장에 활기를 준다. 위에 제시된듯이, 대만의 유료 TV 방송의 시장규모는 2004~2008 년 기간동안 상승한 바가 거의 없지만, 한국은 해마다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다. 2013 년대에 들어섰을 때의 시장규모는 대만보다 무려 2 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변화도 한국은 2014 년이 되면 대만의 3 배를 넘어갈 것이다.

5.2.5 공영 TV 방송의 자원 나눔

지금 한국에서나 대만에서 공영 TV 방송은 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대만에 2007 년에 생긴 공영방송집단인 PTS, CTS,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는 모두 같은 법인기관에 속하여 자금과 자원의 나눔은 더욱 쉽다.

한국 공영 TV 방송 중 KBS 는 지상파에서 유일하게 채널 2 개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이다. KBS-1 는 시사교양 전문의 채널이고 KBS-2 는 언론통폐합을 실시했을 당시 상업 TV 방송인 TBC 를 흡수해서 나타난 채널이다. 그 이후에도 계속 상업성을 띄어온 채널이다. KBS-1, KBS-2 는 각각 다른 위상을 부각시켰지만, 실은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대만의 Hakka TV, Taiwan Indigenous TV,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는 TBS 에 가입한 후 매년 프로그램제작을 더 이상 다른 기관에 맡기지 않자, 불안정한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Hakka TV 와 Taiwan Indigenous TV 는 각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 외에, 일부분의 프로그램은 실은 PTS 가 이미 방송했던 것을 다시 하카어와 원주민어로 더빙하여 재방송한 것이다. Taiwan Macroview TV 도 대부분 PTS 와 다른 지상파 TV 방송의 프로그램을 직접 재방송한다.

< 표 V-14 > Taiwan Macroview TV 의 뉴스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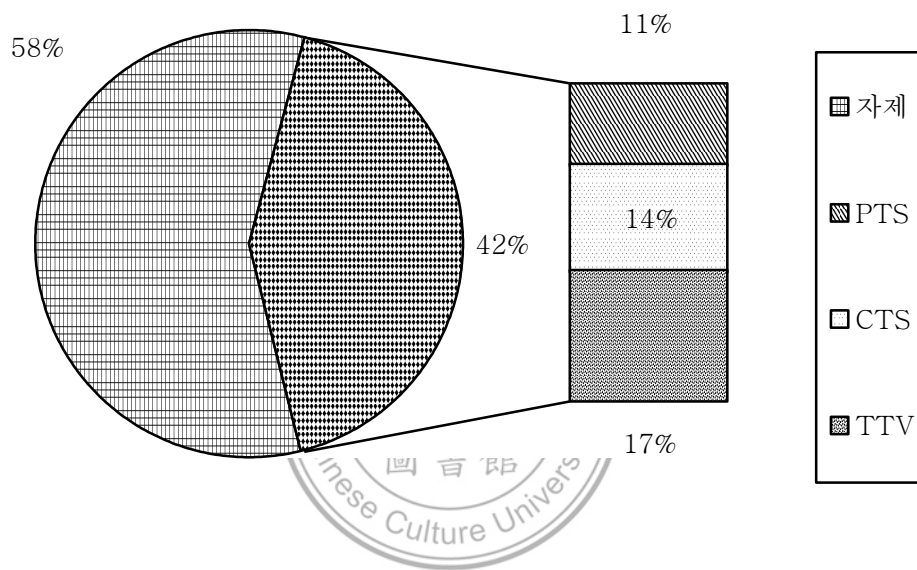
뉴스프로그램	자체		중국어뉴스 광둥어뉴스 영어뉴스 하카어뉴스
	외제		중국어뉴스 대만어뉴스
공유자	공영 TV 방송	PTS	중국어뉴스
		CTS	중국어뉴스 대만어뉴스
	상업 TV 방송	TTV	중국어뉴스

뉴스프로그램을 예로 보면 Taiwan Macroview TV 는 중국어, 광둥어, 영어, 그리고 하카어의 뉴스프로그램을 제작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교포를 위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 내용은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대만과 관련 있는 뉴스도 제공하기 위하여 외제 뉴스프로그램을 방송한다.

같은 TBS 계열인 PTS 가 중국어의 뉴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CTS 는 중국어와 대만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지상파 상업 TV 방송인 TTV 의 중국어 뉴스프로그램도 방송한다.

[그림 22] Taiwan Microview TV 뉴스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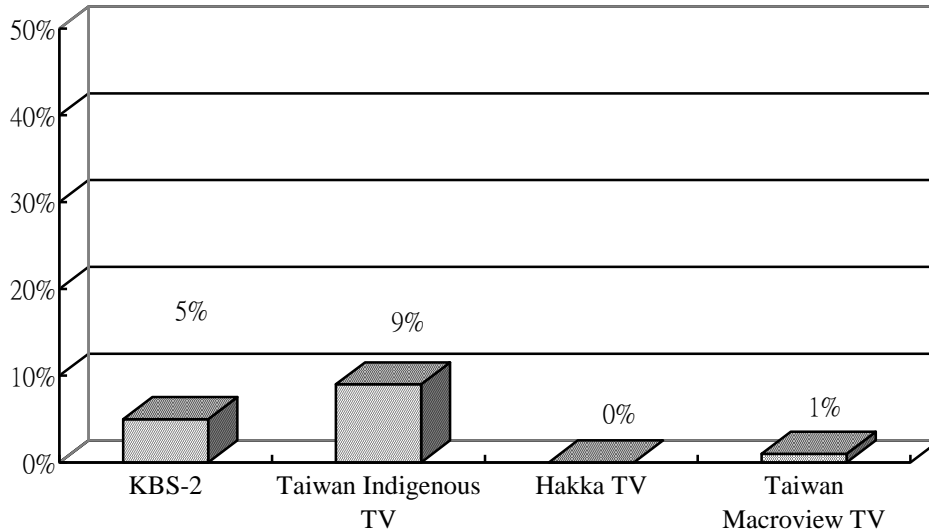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 제시한듯이 Taiwan Microview TV 의 뉴스프로그램은 58%는 자제이고 25%는 다른 공영 TV 방송이 제공한 것이다. TBS 는 공영방송집단으로서 자원을 잘 나눠서 대만을 세계에 알려주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다.

1. Taiwan Indigenous TV, Hakka TV, Taiwan Macroview TV, 그리고 PTS 의 국제적인 잠재력을 잘 발휘하여 TBS 를 국제홍보 브랜드로 만들도록 한다.
 2.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TBS 의 이름을 세계에 잘 알려준다.
 3. 국제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최하여 국제협력기회를 만든다.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의 시야를 넓히도록 한다⁶³.

⁶³ 2009 공영방송집단 보고서에 TBS 에 대한 기대이었다. 다른 3 개는
 ■ 대중이 좋아하고 신뢰하고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된다.

[그림 23] KBS, PTS 의 프로그램 공유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KBS-2 는 KBS-1 의 5%, Taiwan Indigenous TV 는 PTS 의 9%, 그리고 Taiwan Macroview TV 는 PTS 의 1%를 재방송한다.

1. 다원민족과 각 시청자들을 잘 챙겨준다. 창조적이나 활력적인 진행과 제작기술로 대중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2. 제작과 방송환경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의 질과 양을 향상시킨다. 질 좋고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빠르고 정확한 뉴스, 보도를 제공한다.
 3. 지역조직과 사회단체의 협력을 중시하고 온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기를 창도한다. 완벽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가 공영매체에 대한 인정과 지지를 쟁취한다.
 4. 대중 문책(問責) 과 공공평가를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대중의 참여와 감독을 촉진한다. 공영방송집단 내부에는 민주화를 세워야 하고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여 자주, 자율, 자책의 정신을 이루어야 한다.
- 공영집단의 운영을 건전하게 하여 조직의 효능을 향상시킨다.
 1. 집단의 각 효능을 고려하여 현재의 자원을 잘 이용한다.
 2. 인사 및 업무효과 제도를 개선한다. 내부에서 민주제도를 세워서 조직을 활력하게 만든다. 팀워크정신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인정과 효율을 제고한다.
 3. 집단성원의 위상과 분공을 확립한다.
 4. 지역의 정보차이를 줄인다. 남부, 동부, 그리고 외도 지역에 대해 서비스를 강화한다.
 - 디지털의 제작과 방송환경을 완성시켜서 매체서비스플랫폼을 제공한다.
 1. 디지털플랫폼에서 문화예술, 교육, 뉴스, 다큐멘터리, 체육, 생태환경 등 전문하는 콘텐츠와 채널을 개발한다.
 2. 인력 및 경비를 늘려서 뉴미디어의 효능을 제고한다.
 3. 디지털 제작과 방송 영역에 관한 인재를 양성한다.
 4. 미디어파크(Media Park) 를 설치하고 영상 및 디지털콘텐츠산업에 질 좋은 자원을 보내서 공공서비스의 플랫폼이 된다.

VI. 결론

TV 방송은 출범부터 현재까지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에 대한 영향도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단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매체 중의 하나로서 정보를 전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문화방면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케이트키퍼 (Kate keeper) 가 되었다. 케이트키퍼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나서 사회에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싶을 것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내서 도와야 한다.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영 TV 방송의 출범은 TV 방송의 발전에서 중요한 하나의 노정이다. 공영 TV 방송은 정치, 이해관계 등에서 벗어나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시하는데 기여한다. 물론 한국은 대만보다 25 년 일찍 공영 TV 방송이 시작되어 생성과 발전과정이 많이 다르지만 공영 TV 방송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과 한국의 공영 TV 방송의 발전은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시대에 따라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지금 공영 TV 방송은 각기의 문제점이 생겨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내 TV 방송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은 대만과 한국의 문제점은 단지 시간의 차이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일찍이 공영 TV 방송이 생겼으므로, 지금 처하고 있는 위기는 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다. 그러므로 대만 또한 몇 년 후에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발전진도로 보면 한국의 공영 TV 방송을 개발완료라고 하고 대만은 아직 개발시작 중이라고 본다. 출범이 보다 늦고 점유율도 낮아서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3 가지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번째는 점유율이다. 대만 공영 TV 방송 중 지상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다. 반면에 한국은 75%이다. 대만에서 몇 년 전 또 다른 공영 TV 방송이 생겼다하더라도 지상파에서는 PTS 와 CTS 뿐이다. 두 번째는 시청률이다. 대만의 공영 TV 방송은 아직 그만큼의 시청률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도 상상이 된다. 마지막은 주재원이다. 한국은 주로 수신료에 의존하고 대만은 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한다.

물론 현황이 달라서 지금 막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르지만, 한국과 대만, 심지어 다른 나라의 공영 TV 방송까지도 공동적으로 같은 개혁방안을 취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각 채널의 위상을 다시 확립하고 디지털화를 대비해 공영 TV 방송들과 서로 재원을 나누고, 외부적으로 다른 영역에 경영을 넓혀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관련있는 기업과 제휴하거나 사회공헌에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한 범위가 넓지 않아 소홀히 했던 부분도 많았지만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이나 대만의 공영 TV 방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한국 :

강만석, 이영주(2005), 「방송통신 융합 시대 공영방송의 좌표와 개혁」, 『KBI 연구』

강만석, 오경주(2006), 「방통융합시대의 공공서비스방송 정책방안」, 『KBI 포커스』

강영희(2000), 「커뮤니케이션 매체중심의 역사적 접근방법- 매체이론의 연구경향과 시사점」, 『韓國言論學報』

강익희, 이세영(2009),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실태조사 I : 국내외 산업실태조사」, 『KOCCA 연구보고서』

강형철, 양승찬(2003), 「공영방송의 위기」, 『한국언론정보학보』

강형철(2007), 「공영방송의 새로운 정체성」, 『방송연구』

강형철(2008),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방송문화연구』

권장원(2007), 「방송 정책과 방송사 조직 내부 관행 간의 상호작용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권호영(2002),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KBI 연구』

권호영(2003), 「유선방송시장에서의 경쟁」, 『KBI 연구』

권호영, 정선영(2006), 「광고 수요의 매체 간 대체성에 관한 분석」, 『韓國言論學報』

김영덕(2006), 「방송통신융합과 콘텐츠 진흥체계」, 『KBI 포커스』

- 나낙균(2006), 「한미간 방송 시장 개방 (FTA) 협상과 문화다양성협약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 박웅진(2006), 「2005년 지상파 방송 3사의 편성분석과 그 함의」,
『KBI 포커스』
- 박인규(2004), 「공영방송 KBS의 조직문화와 가치지향성」,
『한국언론정보학보』
- 박주연(2005), 「TV 프로그램을 통한 방송사의 자사 홍보활동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 방송통신위원회(2009), 「2009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 송경희(2002), 「아시아 국가의 텔레비전-방송구조, 프로그램, 수용자」,
『한국언론정보학보』
- 송경희(2003), 「WTO 서비스 협상과 국내 방송규제」, 『한국언론정보학보』
- 송종길(2004), 「정치냉소주의와 TV저널리즘」, 『KBI 연구』
- 윤세경, 김미라(2005), 「지상파 3사의 HDTV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 윤재식(2004), 「방송 영상 산업 진흥 정책의 이해」, 『KBI 연구』
- 윤호진(2003),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KBI 연구』
- 윤호진(2005), 「2005 TV 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KBI 연구』
- 윤호진(2005),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시스템의 이원화 및
세분화 방안」, 『KBI 연구』
- 윤호진, 이동훈(2004), 「미디어 정치 시대의 TV 저널리즘」, 『KBI 연구』
- 은혜정(2003), 「위성방송 연구 : 위성방송과 수용자」, 『KBI 연구』
- 이기현(2004), 「글로벌 시대의 TV 저널리즘」, 『KBI 연구』
- 이동훈(2004), 「2000~2004년 지상파 TV의 편성 동향 분석」, 『KBI 연구』

- 이상기(1999), 「방송산업 지대회수 방안으로서의 경매제도 : 방송 이용권의 자유로운 시장 거래 방안」, 『한국언론정보학보』
- 임정수(2005), 「매체 도입기에 나타난 두려움에 대한 연구 : 혁명적 변화와 진화적 변화의 중재기제로서의 두려움」, 『韓國言論學報』
- 임흥순(2005), 「시기와 요인에 따른 KBS의 자원변화에 대한 연구」
- 장우성(2008), 「공영방송 (KBS와 MBC) 내부직원의 기업 아이덴티티와 평판 간의 관계:조직 일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 정용준(2000),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와 통합방송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 주정민(2006),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공익성」, 『한국언론정보학보』
- 최영목, 박승대(2009),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 통계청(2009), 『2009년 사교육비조사』
- 한국방송개발원(1994),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상호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개발원(1995), 「방송사업자간 공정거래 유도 및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한국방송개발원(1996),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방송개발원(1997), 「케이블 텔레비전의 효율적인 편성방안 연구-채널내 프로그램 편성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개발원(1997),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 한국방송개발원(1998), 「케이블 TV 산업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개발원(1998), 「외국 방송사의 21 세기 경영전략 : 공영방송사의 재정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개발원(1998),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역할과 개선방안-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공영방송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진흥원(1999), 「위성방송 운영방안 연구」
- 한국방송진흥원(2001), 「1990년대 한국 방송정책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 한국방송진흥원(2001), 「국내외 방송영상시장 종합분석 연구」
- 한국방송진흥원(2002), 「위성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 EBS (2010), 『EBS 2010 年誌』
- KBS (2010), 『KBS 2009 연차보고서』
- SBS (2010), 『SBS 스토리』



대만 :

- 彭文正 (2008), 「客家電視在多言文化中的傳播功能與挑戰」, 『廣播與電視』
- 羅世宏 (2008), 「公共廣電八十載 追求共善新世紀」, 『新聞學研究』
- 劉明椿 (2003), 『換個姿勢看電視』, 揚智文化
- 劉蕙苓 (2007), 「黨營媒體股權轉移下的勞工意識-中視的個案研究」, 『新聞學研究』
- 劉昌德 (2006), 「台灣商營電視節目內容管制的演變：結構去管制下的內容再管制」, 『廣播與電視』
- 林麗雲 (2005), 「威權主義國家與電視：台灣與南韓之比較」, 『新聞學研究』
- 林悅倫 (2001), 「臺灣公共電視台文化性節目之規劃策略分析」
-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2001), 『2001公共電視年度報告』
-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2009), 『2009客家電視台年度報告』
-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2009), 『2009公視基金會年度報告』
-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2010), 『99年度公共電視節目收視質研究第3季報告』
- 公共電視文化事業基金會 (2010), 「公共廣電數位化發展及高畫質電視頻道建置計畫」
- 公共策略研發部 (2007), 『追求共好—新世紀公共電視』
- 公共策略研發部 (2008), 「公共電視董監事會 2008年韓國廣電機構參訪報告」
- 管中祥 (2008), 「公共電視的新媒體服務：PeoPo 公民新聞的傳播權實踐」, 『廣播與電視』
- 管中祥 (2009), 「光影游擊最前線：台灣另類媒體 2007-2008」, 『新聞學研究』

- 柯舜智，莊春發（2008），「再探台灣有線電視市場集中度」，『新聞學研究』
- 洪貞玲（2006），「誰的媒體？誰的言論自由？—解嚴後近用媒介權的發展」，
『台灣民主季刊』
- 洪貞玲（2006），「國家管制與言論自由—從衛星電視換照爭議談起」，
『廣播與電視』
- 秦琍琍（2001），「公共電視企業文化、管理運作與組織溝通之關聯性研究」，
『廣播與電視』
- 秦琍琍（2009），「從社會企業的角度檢視公廣集團的困境與挑戰—一個整合性論
點的提出」，『廣播與電視』
- 邱家宜（2006），「從英美傳播管制經驗思考台灣 NCC 的制度與使命」，
『廣播與電視』
- 鄭麗琪，陳炳宏（2003），「媒體企業之集團化與多角化研究—以中國電視公司為
例」，『廣播與電視』
- 程宗明（2003），「研發公共電視數位化之資源網絡分析—行動者的實徵調查與情
境詮釋」，『廣播與電視』
- 程宗明（2008），「從公視法到公共廣電法之提升建構：一個實務者的參與規劃報
告」，『廣播與電視』
- 陳一香（2002），「多頻道環境下的電視節目多樣性分析：以台灣無線電視台與有
線電視綜合頻道為例之比較分析」，『廣播與電視』
- 陳炳宏（2010），「媒體集團化與其內容多元性之關聯性研究」，『新聞學研究』
- 陳炳宏（2003），「台灣電視產業市場結構與經營績效關係之研究」，
『新聞學研究』
- 陳慶立（2008），「韓國主要電視台及國際影視節簡介」
- 陳慶立（2009），「KBS 的公共價值評量」
- 陳慶立（2009），「KBS 集團整合運作初探」

- 陳慶立(2010), 「韓國廣播通訊委員會初探」
- 陳彥龍,熊杰(2008), 「結束後的開始：NCC 成立歷程與釋憲後的修法議題」,
『廣播與電視』
- 陳彥龍,劉幼琍(2006), 「邁向公廣集團：數位時代我國特定族群專屬電視頻道
之法制研議」, 『中華傳播學刊』
- 曹婉凌,彭玉賢,林珍瑋(2008), 「公共廣電問責體系初探：以台灣公廣集團公
共價值評量指標建構為例」, 『新聞學研究』
- 蔡欣怡(2007), 「南韓 KBS 電視台計畫調漲收視費背後之爭議」
- 曾國峰(2008), 「公視自籌款經費短缺對節目產製的影響」, 『廣播與電視』
- 魏玟(2006), 「公共廣電的管制問題：並試論我國公共廣電集團與 NCC 之(可能)
關係」, 『中華傳播學刊』
- 魏玟(2006), 「監理之外：初探 NCC 在媒體產業輔導與媒體文化發展的角色」,
『廣播與電視』
- 魏玟(2008), 「公共廣電機構治理初探：原則、課題與機制」, 『廣播與電視』
- 翁秀琪(2008), 「公共媒體如何問責：以台灣的公共集團為例」, 『新聞學研究』
- 文化建設委員會(2009), 「創意台灣—文化創意發展方案行動計畫 98-102 年」
- 文化建設委員會(2010), 『文化創意輔導資源手冊』

기타 :

David Croteau, William Hoynes (2002) ,

『Media / Society :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Pine Forge Press

JUKKA PEKKA JOUHKI (2008) ,

『Korean Communication and Mass Media Reserch: Negotiating the West's Influence』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Karl Erik Rosengren (2000) ,

『Communication :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 Inc.

YOON-JOO LEE, SORA KIM (2010) ,

『Media framing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 Korea-U.S. Comparative

Study』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Abstract

The television is appeared in Korea since 1961 and 1962 in Taiwan. Not only similar facilities, but also similar effects on culture of Korea and Taiwan. In recent years of Taiwan, TTV · CTV, and CTS had a television monopoly and gather great income of advertising. But till in 1990s, cable televisions and satellite televisions begin to be the major mass media, terrestrial televisions lost their dominant positions and advertising income very soon. In the meantime of Korea, KBS, MBC and EBS also encounter the same thing which happened in Taiwan. The most important of all, Korea media still control the television environment and extremely influence the life of Korean nowaday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televisions culture of Taiwan is totally different from Korea. The public television media of Korea established in 1973, compared with each other, Taiwan obviously late then Korea, which without began public televisions till 1998. As for Taiwan, many basal conditions need to be strengthen further, such as, experiences, funding, range of broadcasting...etc.

The public televisions of Korea and Taiwan or even in other countries, all of us are changing and adjusting every second. Although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principle of public television (justice, common benefits, and fairness) and the responsibility of supervision are the same forever.

However, how to free from the government and advetisors is the first question for public televisions. I' m hereby compared the difference of public television mass media between Korea and Taiwan in the thesis, hope it' ll help you a lot from getting understanding in Korea and Taiwan' s public televisions.

There are six parts of the thesis :

1. Instrodution
2. The development of public televisions in Korea and Taiwan
3. The form of organization for public televisions in Korea and Taiwan
4. The programs of public televisions in Korea and Taiwan
5. The difficulty and reform proposal for public televisions in Korea and Taiwan
6. Conclusion